

인류 발전의 해법

L2Q 질문하기 시스템은
부재했던 교육 경로다

SEAN GRINYER

worldeducation.online
q2l.online

목차

왜 아이들에게 L2Q 질문하기 툴킷이 필요한가	4-13
---------------------------	------

왜 L2Q 시스템이 부재했던 교육 경로인가	14-17
-------------------------	-------

L2Q 질문하기 툴킷

1. 출처와 기원	18-44
2. 증거 기준	45-73
3. 유인과 이득	74-99
4. 성격과 일관성	100-126
5. 질문할 허락	127-153
6. 정서적 영향	154-192
7. 서사 대 현실	193-222
8. 심리적 영향	223-247
9.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	248-272

인류 발전	273-299
-------	---------



당신은 볼 수 없는 것에서 배울 수 없다

왜 아이들에게 L2Q 질문하기 툴킷이 필요한가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학습을 발전시키며, 진실을
분별하고, 기만의 반복을 끊기 위해 아이들에게 L2Q 질문하기
툴킷을 제공하기

아이들의 마음과 학습은 무엇이 자신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세계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L2Q 질문하기 툴킷이 필요한 이유다.

L2Q 질문하기 툴킷은 일반적인 교육 자원이 아니다.

이것은 Book of Evidence에서 개발되고 World Education
Online을 통해 체계화된, 세계에 처음 제시되는 구조화된 교육
방법으로서, 아이들에게 실제 세계 환경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진실을 분별하고,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만들어진
거짓말이 그들의 마음과 학습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L2Q 질문하기 툴킷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L2Q 질문하기 툴킷은 정보, 성인, 학교, 시스템, 돈, 권위,
서사, 행동, 심리적 영향,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질문하는 구조화된
방법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그것은 무엇이 참인지 검증하고, 기만을 알아보고,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며,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가르친다.

이것은 더 많은 정보를 배우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거짓말, 반복되는 서사, 정서적 영향, 두려움, 권위, 침묵, 의존, 기만이 아이들의 세계 인식을 형성하기 전에 세계 환경에 질문할 수 있는 도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은 반복되고, 보호되고, 숨겨지고, 정상화되어 진실로 제시되는 것들에 그대로 노출된다.

만들어진 거짓말은 아이들을 오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주변 세계를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영향과 아이들의 마음

심리적 영향은 L2Q 질문하기 툴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심리적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그것을 식별할 도구를 갖기 전에 기만이 마음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복되고, 보상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숨겨지고, 정상화되고, 보호되거나 진실로 제시되는 것은 아이들의 인식, 학습, 신뢰, 이해, 행동을 형성한다.

아이들에게 정보, 이야기, 시스템, 권위, 두려움, 압력, 보상, 처벌, 침묵, 반복, 정서적 영향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져야 한다.

아이들이 심리적 영향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세계 환경이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 이해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한다.

그것은 학습을 발전시킨다.

그것은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분별할 능력을 준다.

그것은 만들어진 거짓말이 받아들여지고, 반복되고, 물려받는 대신 질문의 대상이 되고, 검증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기만이 아이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경로를 제거한다.

정신적 웰빙과 기만의 제거

기만은 진실을 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배우고, 세계를 보는

아이들이 만들어진 거짓말, 반복되는 서사, 두려움, 침묵, 정서적 영향, 압력, 권위, 기만에 둘러싸이면, 세계는 실제로 그럴 필요 이상으로 더 어둡고, 더 혼란스럽고, 더 위협적이고, 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그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무엇이 참인지 신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L2Q 질문하기 툴킷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학습을 강화하며,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중심적인 이유다.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질문할 도구가 주어지면, 기만은 그들의 인식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한다.

만들어진 거짓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대신 질문의 대상이 된다.

두려움에 기반한 서사는 반복되는 대신 검증된다.

권위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신 검토된다.

정서적 영향은 그들의 사고를 통제하는 대신 인식된다.

침묵은 숨겨진 해악이 계속되도록 두는 대신 질문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계 안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에 질문할 구조화된 방법을 받는다.

그들은 진실과 만들어진 거짓말을 분리할 방법을 받는다.

그들은 기만, 두려움, 서사, 침묵, 심리적 영향으로 만들어진 더 어두운 모습만 보는 대신 세계를 더 명확하게 볼 방법을 받는다.

기만이 아이들의 이해에서 제거되면, 세계는 희망이 없고, 혼란스럽고, 어두워 보일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문제가 행동, 시스템, 유인, 침묵, 서사, 그리고 L2Q의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경로의 부재를 통해 만들어지고, 반복되고, 보호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것은 세계가 그들이 질문하고,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더 이상 세계의 무게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웰빙을 강화한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그것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무엇이 참인지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

아이들에게 L2Q 질문하기 툴킷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서 기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보호한다.

기만이 아이들의 마음을 통과하는 경로를 잃으면, 두려움, 혼란, 거짓된 어둠, 반복되는 서사는 아이들이 현실을 보는 방식을 형성할 힘을 잃는다.

침묵, 돈, 그리고 기만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에 질문하기

아이들에게 L2Q 질문하기 툴킷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기만이 침묵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검토되지 않는 것을 보호한다.

침묵은 사람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보호한다.

침묵은 시스템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호한다.

침묵은 돈, 의존, 고용, 지위, 평판, 권위, 두려움이 숨겨 두는 것을 보호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침묵이 이미 작동하는 세계 안에서 교육받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들도 교육받았던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반복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도록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보수를 받고, 배치된 성인들에게서 배운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 자체가 L2Q가 아이들에게 질문하도록 가르치는 바로 그 세계 환경 안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현재 교육은 아이들에게 침묵 뒤의 메커니즘에 질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현재 교육은 돈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의존이 무엇을 통제하는지, 고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권위가 무엇을 막는지, 평판이 무엇을 숨기는지, 두려움이 무엇을 침묵시키는지, 유인이 무엇을 형성하는지, 시스템이 무엇을 계속되도록 허용하는지를 질문하도록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침묵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제시되는 그대로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반복되는 것은 배우지만, 숨겨진 것은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승인된 것은 배우지만, 보호되는 것은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가르쳐지는 것은 배우지만, 회피되는 것은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만들어진 거짓말, 기만, 두려움, 의존, 반복되는 패턴을 제자리에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계 환경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운다.

L2Q 질문하기 툴킷은 아이들에게 그 메커니즘에 질문할 방법을 제공한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가르친다:

무엇이 말해지지 않고 있는가?

왜 그것은 말해지지 않고 있는가?

침묵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돈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의존은 무엇을 통제하는가?

두려움은 무엇을 막는가?

권위는 사람들이 무엇에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가?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는가?

이것이 침묵에 질문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학습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이유다.

아이들이 침묵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교육, 시스템, 권위,
서사, 돈, 반복되는 행동의 표면 뒤에 숨겨진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들이 침묵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보면, 기만 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기만 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독립적 사고가 발전한다.

독립적 사고가 발전하면 만들어진 거짓말은 아이들의 마음을
통과하는 경로를 잃는다.

이것이 L2Q 질문하기 툴킷이 아이들에게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서 기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제시되는 것, 숨겨진 것, 보호되는 것,
반복되는 것, 대가가 지불되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침묵시켜지는 것, 진실로 제시되는 것에 질문할 능력을 준다.

이것은 교육 개선의 핵심이다. 교육이 아이들에게 주변의 세계 환경을 형성하는 침묵, 돈, 의존, 유인, 권위에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채 정보만 반복하도록 가르치는 동안에는 교육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것이 Q2L과 Young Questioners의 핵심인가

이것은 Q2L과 Young Questioners의 핵심이다.

아이들은 부모, 교사, 돌봄 제공자, 학교, 교육 환경, 책임 있는 성인을 통해 안전하게 L2Q를 접하며, 같은 세계가 그들을 그 세계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형성하기 전에 올바르게 질문하고, 실제 세계 환경에서 배우며,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킬 도구를 받는다.

역할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할은 아이들에게 L2Q 방법을 제공하여 그들이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진실을 분별하고, 마음을 보호하고, 학습을 발전시키며, 실제 세계 환경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성인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그들은 서로를 관찰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생각, 행동, 습관, 관심, 이해, 사고방식을 서로 공유한다.

아이들 안에서 질문하는 능력이 발달하면, 그것은 아이에서 아이로 퍼진다.

아이들에게 이해가 발달하면, 그것은 아이에서 아이로 퍼진다.

아이들에게 독립적 사고가 발달하면, 그것은 아이에서 아이로 퍼진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질문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이것이 아이들이 변화의 주된 경로인 이유다.

그 영향은 한 아이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의 집단, 교실, 학교, 공동체, 미래 세대로 이동한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보기 시작한다.

보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해가 발달하면 독립적 사고가 발달한다.

독립적 사고가 발달하면 기만은 그 경로를 잃는다.

기만이 그 경로를 잃으면, 기만으로 만들어진 해악은 사람, 교육, 시스템, 사회를 통과하는 경로를 잃는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질문할 능력을 주는 일이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이유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한다.

그것은 학습을 강화한다.

그것은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분별할 능력을 줌으로써
세계에서 기만을 제거한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르게 질문할 도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학습이 발전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독립적 사고가 발전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기만이 그 경로를 잃는 방식이다.

그것이 세계가 개선되도록 교육이 개선되는 방식이다.

진실에 기반한 세계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질문할 도구가
주어질 때 시작된다.

왜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이 부재했던 교육 경로인가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이 다른 이유는 그
기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Book of Evidence에서 개발되었다.

Book of Evidence는 30년이 넘는 기간의 타임스탬프가 있는
직접 경험, 증거, 공개 기록, 이의 제기, 그리고 세계 환경
자체를 통해 드러난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했다.

증거가 늘어날수록 하나의 모순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질문하기는 존재했다.

그러나 반복은 계속되었다.

같은 기만이 계속되었다.

같은 침묵이 계속되었다.

같은 의존이 계속되었다.

같은 모순들이 계속되었다.

같은 반복 패턴들이 계속되었다.

Book of Evidence는 질문하기의 부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은 질문하기가 이미 존재했는데도 같은 세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모순은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의 핵심에 놓여 있다.

질문하기가 이미 존재했다면, 왜 같은 패턴들이 계속되었는가?

Book of Evidence는 같은 모순을 반복해서 드러냈다.

질문하기는 존재했다.

그러나 반복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질문하기의 부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세계 환경 자체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변 세계를 반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서도 반복을 만들어 내는 바로 그 세계 환경에 의해 계속 형성될 수 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서도 반복되는 패턴을 물려받고, 받아들이고, 방어하고,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하기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하기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무엇이 반복을 만들어 내는지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재했던 요소는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었다.

정보는 이미 존재했다.

부재했던 요소는 더 많은 질문하기가 아니었다.

질문하기는 이미 존재했다.

부재했던 요소는 세계 환경 자체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였다.

질문하기가 이미 존재했는데도 반복해서 계속된 것을 검토하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

반복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을 검토하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

그 부재했던 경로가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이 되었다.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은 Book of Evidence를 통해 확립된 증거의 토대에서 개발되었다.

그것은 질문하기가 이미 존재했는데도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되었음을 Book of Evidence가 드러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그것은 Book of Evidence가 부재했던 교육 경로를 드러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그것은 Book of Evidence가 질문하는 것과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같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L2Q는 질문하기가 이미 존재했는데도 반복해서 계속된 것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L2Q는 반복이 만들어 낸 결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L2Q는 세계 환경 안에서 단순히 작동하기보다 세계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L2Q는 사람들이 세계 환경 안에서 단순히 기능하기보다 세계 환경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것이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이 다른 이유다.

이것이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이 부재했던 교육 경로를 나타내는 이유다.

질문하기의 출처와 기원은 중요하다.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의 출처와 기원은 중요하다.

L2Q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시스템은 Book of Evidence를 통해 확립된 증거의 토대에서 비롯되었다.

그 시스템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 왜 다른지 이해하는 첫 단계다.

이것이 첫 번째 섹션이 출처와 기원으로 시작하는 이유다.

섹션 1 - 출처와 기원

출처와 기원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출처와 기원은 모든 것이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그 정보를 형성하고 있는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법 배우기(L2Q) 질문하기 툴킷의 토대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검토하는 법이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정보를 제시받는다.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받는다.

사람들은 정보를 배운다.

사람들은 정보를 암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정보를 반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정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정보를 방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 어떻게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다.

인간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학습 환경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환경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남겨져 있다.

사람들은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를 통해 세계 환경이 자신의 마음, 믿음, 감정, 신뢰, 행동, 인식,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돈, 의존, 권위, 침묵, 서사, 반복, 두려움, 유인, 도달 범위, 지위, 만들어진 거짓말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지 못한다.

세계 환경 자체가 하나의 학습 환경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인류에게 배울 기회를 제시한다.

사람들은 존재하는 가장 큰 학습 환경 안에 이미 서 있으면서도 흔히 누군가에게 가르침받기를 기다린다.

따라서 세계 환경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매일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무엇이 내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감정을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 형성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세계의 표면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시스템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규칙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권위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돈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교육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반복되는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그것들을 만들고, 보호하고, 형성하고, 계속되도록 허용하는지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이유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다.

본다는 것은 표면적 설명을 넘어 세계 환경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인식하기 시작할 만큼 깊이 질문하는 과정이다.

보는 것은 이해로 이어진다.

이해는 학습으로 이어진다.

학습은 독립적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출처와 기원은 단순히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식별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 자체를 무엇이 형성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깊이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누가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어떤 유인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이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가?

무엇이 숨겨지고 있는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무엇이 관련된 사람들을 형성하고 있는가?

어떤 세계 환경이 이것을 만들어 냈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단순히 정보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동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시스템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서사를 물려받는다.

그들은 의존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침묵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권위를 물려받는다.

그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만들어진 거짓말도 물려받는다.

만들어진 거짓말은 단순히 개별적인 거짓 정보 조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거짓말은 세계 환경 자체에 박혀 들어간다.

그것은 정상화된다.

그것은 보호된다.

그것은 반복된다.

그것은 방어된다.

결국 그것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그 뒤 사람들은 그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만들어진 거짓말을 물려받는다.

사람들은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를 통해 세계 환경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운다.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안에서 기능하는 데 매우 능숙해질 수 있다.

기능하는 것은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게 한다.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배우게 한다.

교육이 사람들에게 세계 환경 안에서 기능하는 법만 가르친다면, 교육은 같은 세계 환경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계 환경의 학습자가 아니라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된다.

인류는 인류 자신이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 내는 세계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

세계 환경은 성인을 형성한다.

성인은 교사를 형성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형성한다.

아이들은 성인이 된다.

그 성인들은 다시 같은 세계 환경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경로를 통해 그것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순환은 무기한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마음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직함, 권위, 시스템, 기관, 출처, 개인도 다른 사람을 위해 독립적으로 이해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이해는 개인의 마음 자체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

질문하기는 이해를 발전시킨다.

이해는 학습을 발전시킨다.

학습은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따라서 사람들은 결과를 끝없이 반복하는 대신 원인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세계에 단지 적응하는 대신 무엇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출처와 기원이 질문하는 법 배우기(L2Q) 질문하기 툴킷의 맨 앞에 놓이는 이유다.

출처와 기원이 약하면 다른 모든 섹션도 함께 약해진다.

증거 기준이 약해진다.

유인과 이득이 약해진다.

성격과 일관성이 약해진다.

질문할 허락이 약해진다.

정서적 영향이 약해진다.

서사 대 현실이 약해진다.

심리적 영향이 약해진다.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이 약해진다.

따라서 출처와 기원은 전체 프레임워크의 토대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계 자체에서 배우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다.

진행은 다음과 같다:

질문한다.

본다.

이해한다.

배운다.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이것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반복하는 일을 멈추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단순히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되는 대신 세계 환경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출처와 기원이 질문하는 법 배우기(L2Q) 질문하기 툴킷의 첫 번째 섹션인 이유다.

인식

사람들은 세계 환경이 자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반복되는 패턴이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보는 것을 흔히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반복을 진실로 착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익숙함을 증거로 착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기를 신뢰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를 정확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시성을 중요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전문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위를 이해로 착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는 배우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는가?

누가 이 믿음을 나에게 소개했는가?

나는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 왔는가?

나는 이것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는가?

무엇이 이것을 반복해서 강화해 왔는가?

나는 이것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보았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물려받았는가?

현재 교육이 세계 환경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세계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아이들은 성인을 관찰한다.

아이들은 행동을 관찰한다.

아이들은 시스템을 관찰한다.

아이들은 권위를 관찰한다.

아이들은 돈을 관찰한다.

아이들은 의존을 관찰한다.

아이들은 서사를 관찰한다.

아이들은 반복을 관찰한다.

아이들은 침묵을 관찰한다.

아이들은 무엇이 보상받는지를 관찰한다.

아이들은 무엇이 억제되는지를 관찰한다.

따라서 현재 교육이 세계 환경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세계 환경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성인들 역시 그것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세계 환경에 의해 계속 교육받고 있다.

교육이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실제 세계 환경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을 형성했던 같은 반복의 순환 안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단순한 서사 안에 갇힐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배우는 대신 편을 선택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세계 환경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대신 영웅과 악당이 라는 틀로 생각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더 많이 볼수록 그것은 더 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더 정상적인 것이 될수록 검토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무엇이 내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가?

나는 세계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반복해서 내게 제시된 것만 보고 있는가?

출처와 기원은 사람들을 인식을 넘어 이해로 이동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도달 범위, 지위, 정보 환경

사람들은 흔히 가장 큰 도달 범위를 가진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큰 목소리, 가장 큰 청중, 가장 큰 플랫폼, 가장 높은 지위를 따른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호기심을 외부에 맡긴다.

많은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무엇이 중요한지 말해 줄 때까지 관심을 갖지 않고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조사하기 전에 인기를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도록 허용하기 전에 지위를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사람들이 도달 범위와 지위의 시스템이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허용되는지를 결정하게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능동적 학습자 대신 수동적 학습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왜 이 출처에는 이렇게 큰 도달 범위가 주어지고 있는가?
이 정보가 배포되는 환경을 누가 통제하는가?

무엇이 홍보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숨겨지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제거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가시성을 얻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가시성을 잃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사람들은 또한 도달 범위 자체가 인식된 진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무언가가 더 많이 보일수록 더 익숙해진다.

더 익숙해질수록 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 받아들여질수록 더 참처럼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가시성 자체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증거 때문에 이 출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도달 범위 때문에 이 출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해 때문에 이 출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위 때문에 이 출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도달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를 무시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다른 누군가가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조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게 두고 있는가?

사람들은 배우기 위한 허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사람들은 수동적 학습자 대신 능동적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돈, 의존, 시스템

돈은 세계 환경 전반에서 행동을 형성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보를 둘러싼 메커니즘에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은 의존을 만들 수 있다.

의존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행동은 무엇이 말해지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행동은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행동은 무엇이 보호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행동은 무엇이 숨겨지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행동은 무엇이 이익을 제기받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행동은 무엇이 계속되도록 허용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 출처는 돈의 경로를 만드는가?
 이 출처는 돈의 경로를 통제하는가?
 이 출처는 돈의 경로에 자금을 대는가?
 이 출처는 돈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출처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의존하는가?
 의존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의존은 질문하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의존은 침묵에 영향을 미치는가?
 의존은 사람들이 무엇에 기꺼이 이의를 제기하려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동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로서의 교사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보의 출처가 된다.
 이것은 교사 자신도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교사들은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거쳐 왔다.
 그들은 정보를 배웠다.
 그들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들은 정보에 대해 평가받았다.

그 뒤 그들은 다음 세대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배치되었다.

이것은 교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을 형성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도 같은 세계 환경 안의 참여자다.

그들도 정보를 물려받았다.

그들 역시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배웠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운다.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는 데
매우 능숙해질 수 있다.

교사 자신도 흔히 이 같은 경로를 거쳐 왔다.

이것이 반복이 세대를 넘어 계속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교사를 가르쳤는가?

누가 교사를 훈련했는가?

어떤 시스템이 교사를 형성했는가?

교사는 실제 세계 환경을 배웠는가?

교사는 돈, 의존, 권위, 침묵, 서사, 반복, 도달 범위, 지위가
인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배웠는가?

아니면 교사는 기존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웠는가?

따라서 교사는 질문하기, 보기, 이해, 학습, 독립적 사고를 촉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짓에서 배우기

사람들은 흔히 거짓은 속이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출처와 기원은 사람들에게 그 너머로 나아가도록 가르친다.

마음이 거짓에 질문할 준비가 되면 거짓은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

거짓은 행동을 드러낸다.

거짓은 의존을 드러낸다.

거짓은 유인을 드러낸다.

거짓은 서사를 드러낸다.

거짓은 침묵을 드러낸다.

거짓은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낸다.

거짓은 사람들이 거짓이 드러내는 것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 거짓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이 거짓이 계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누가 이 거짓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가?

누가 이 거짓을 보호했는가?

누가 이 거짓을 반복했는가?

이 거짓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는가?

인류는 이 거짓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목적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사람들에게 거짓에서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에서 배우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배우는 대신 그것에 반응한다.

반응은 흔히 발전을 멈춘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편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입장을 방어한다.

사람들은 입장을 공격한다.

사람들은 서사 안에 갇힌다.

출처와 기원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넘어가도록 가르친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은 인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것은 의존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것은 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것은 침묵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것은 세계 환경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세계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진행은 다음과 같이 된다:

질문한다.

본다.

이해한다.

배운다.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보이는 출처 대 궁극적 출처

인간의 질문하기에서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사람들이 흔히 처음 보이는 출처에서 멈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본다.

사람들은 한 조직을 본다.

사람들은 한 정부를 본다.

사람들은 한 공무원을 본다.

사람들은 한 언론 매체를 본다.

사람들은 한 전문가를 본다.

사람들은 한 온라인 창작자를 본다.

그 뒤 사람들은 자신이 출처를 확인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출처와 기원은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하도록 가르친다.

보이는 출처가 궁극적 출처가 아닐 수도 있다.

보이는 출처는 정보를 실행하고 있을 수 있다.

보이는 출처는 정보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

보이는 출처는 정보를 보호하고 있을 수 있다.

보이는 출처는 다른 출처에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

보이는 출처 자체가 세계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있을 수 있다.

보이는 출처 자체도 여전히 세계 환경에서 배우고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설명에서 멈춘다.

첫 번째 설명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첫 번째 설명은 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첫 번째 설명은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출처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처음 접한 출처인가?

이 출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이 출처에 영향을 미치는가?

누가 이 출처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이 출처는 어떤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이 출처를 형성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너무 일찍 멈춘다.

출처와 기원은 사람들에게 계속하도록 가르친다.

가능한 동기

사람들은 흔히 단순한 결론에서 멈춘다.

정부는 나쁘다.

언론은 나쁘다.

경찰은 나쁘다.

권위는 나쁘다.

기관은 나쁘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검토하는

출처와 기원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결론을 넘어가도록 가르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나는 첫 번째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장기적 결과는 무엇인가?

나는 나에게 제시된 서사 안에서만 질문하고 있는가?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의 결론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은 존재하는 가장 큰 학습 환경 안에 이미 서
있으면서도 흔히 누군가에게 가르침받기를 기다린다.

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가르친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가르친다.

그것은 반복을 통해 가르친다.

그것은 서사를 통해 가르친다.

그것은 유인을 통해 가르친다.

그것은 의존을 통해 가르친다.

그것은 권위를 통해 가르친다.

그것은 결과를 통해 가르친다.

그것은 침묵을 통해 가르친다.

문제는 교훈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에서 배우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가?

인류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류는 인류에게서
배우고 있다**

인류는 대체로 인류에게 가르침받고 있다.

그러나 인류 자체는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람들은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정보를 물려받는다.

사람들은 정보를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방어한다.

사람들은 배우기 전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전에 따른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전에 반복한다.

사람들은 더 깊은 질문하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경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에서 멈춘다.

이것은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학습을 위한 더 나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르기, 믿음, 그리고 사고의 위임

세계 환경을 반복하게 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는 사고의 위임이다.

사람들은 이것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채 따르도록 배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배운다.

사람들은 직함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사람들은 권위를 신뢰하도록 배운다.

사람들은 지위를 신뢰하도록 배운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신뢰하도록 배운다.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것을 암기하도록 배운다.

그 뒤 사람들은 따르라고 들은 것을 실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그 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 생각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질문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진실을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나는 증거 대신 직함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행동 대신 지위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이해 대신 권위를 신뢰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또한 하나의 서사를 떠나는 것이 자동으로 독립적 사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의 권위를 떠나 다른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설명을 떠나 다른 설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독립적 사고는 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 사고는 모든 편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 의식의 발전

출처와 기원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정보에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것은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인류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인간 의식의 발전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학습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질문하는 인류의 능력을 높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보는 인류의 능력을 높이는 것.

이해하는 인류의 능력을 높이는 것.

배우는 인류의 능력을 높이는 것.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인류의 능력을 높이는 것.

사람들은 또한 모든 사람이 세계 환경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누구도 그 밖에 서 있지 않다.

정부도 그 안에 있다.

언론도 그 안에 있다.

교사도 그 안에 있다.

경찰도 그 안에 있다.

기관도 그 안에 있다.

부모도 그 안에 있다.

아이들도 그 안에 있다.

전문가도 그 안에 있다.

저자도 그 안에 있다.

독자도 그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결정은 반복을 돕거나 학습을 돕는다.

받아들이기.

반복하기.

따르기.
공유하기.
방어하기.
침묵한 채 있기.
모두 결과를 가진다.
원시적인 진행은 흔히 다음과 같다:
따른다.
반응한다.
방어한다.
반복한다.
편을 선택한다.
발전된 진행은 다음과 같다:
질문한다.
본다.
이해한다.
배운다.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세계 환경에서 배운다.
목적지는 끝없는 질문하기가 아니다.
목적지는 이해다.
목적지는 학습이다.

목적지는 독립적 사고다.

목적은 단순히 질문하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세계 환경 자체에서 배우는 인류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섹션 2 - 증거 기준

증거 기준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되는 대신 세계 환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출처와 기원은 정보, 시스템, 이야기, 규칙, 직함, 행동, 반복되는 패턴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그것들을 형성했는지, 시간이 지나며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 어떤 세계 환경이 그것들을 만들어 냈는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제 섹션 2에서는 증거 기준을 다룬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고, 가르쳐지고, 반복되고, 보호되고, 기록되고, 제시되거나 집행되는 것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증거가 실제로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제시받는다.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받는다.

사람들은 정보를 배운다.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정보를 반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정보를 방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증거가 말해지는 것을 뒷받침하는지 올바르게 검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이것은 세계 환경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만든다.

정보는 제대로 검토되기 전에 진실로 제시될 수 있다.

이야기는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진실로 반복될 수 있다.

직함은 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권위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시스템은 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인기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기록된 문서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반복된 주장은 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두려움은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반대 서사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선택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증거는 아니다.

증거 기준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가 받아들여진 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증거 기준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속도를 늦추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무엇이 주장되고 있는지, 무엇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이

모순되는지, 무엇이 두려움이나 정서적 압력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지, 무엇이 그저 참처럼 보일 때까지 반복되었는지를 묻도록 가르친다.

증거 기준은 출처와 기원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위에 세워진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그로부터 주장되는 것을 증거가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사람들이 정보를 믿고, 반복하고, 방어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정보를 어떻게 검토할지 가르치는 것이다.

증거가 해야 하는 일

증거는 단순히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다.

증거는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증거는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증거는 질문을 견뎌야 한다.

증거는 추가 검토에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

증거는 현실과 연결되어야 한다.

증거는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

증거는 모순을 드러내야 한다.

증거는 시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증거는 사람들이 제시된 것에서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증거는 또한 질문받는 것을 환영한다.

증거는 질문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증거는 검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증거는 살아남기 위해 직함, 권위, 반복, 두려움, 지위, 정서적 압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질문하기는 증거를 강화한다.

질문하기는 이해를 개선한다.

질문하기는 약점을 드러낸다.

질문하기는 모순을 드러낸다.

질문하기는 빠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질문하기는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

질문하기는 사람들이 배우도록 돕는다.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는 흔히 질문하기가 제대로 뒷받침될 수 없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질문에 저항한다.

따라서 증거 기준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기가 진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질문하기는 진실로 들어가는 경로 중 하나다.

정보는 증거가 아니다

정보는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진술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직함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역할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반복된 이야기는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글로 쓰인 이야기는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물려받은 믿음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보호받는 서사는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정보를 반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시스템이 무언가가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정보에 붙은 두려움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다른 서사에 반대하는 반대 서사는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AI가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요약하거나, 선택하거나,
제시한 정보는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무엇이 주장되고 있는가?

어떤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그 증거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증거는 검토될 수 있는가?

그 증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증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행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일관성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빠져 있는가?

어떤 증거가 숨겨졌는가?

어떤 증거가 그 주장과 모순되는가?

무엇이 증거 없이 받아들여졌는가?

이 증거는 오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선택되거나, 요약되거나, 재구성되거나, 제시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정보가 제대로 뒷받침되는지 배우지 못한 채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를 암기할 수 있다.

그들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를 반복할 수 있다.

그들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를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세계 환경은 제대로 검토되기 전에 받아들여진 정보를 통해 반복된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진실이 되기

인간 학습에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사람들이 반복을 진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 있다.

하나의 직함은 그것에 권위를 줄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은 그것에 도달 범위를 줄 수 있다.

돈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반복할 이유를 줄 수 있다.

시간은 그것에 익숙함을 줄 수 있다.

기록된 문서는 그것에 영속성의 외관을 줄 수 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반복하면 사회적 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미래 세대는 그것을 진실로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은 증거가 아니다.

반복된 이야기는 증거가 아니다.

글로 쓰인 이야기는 증거가 아니다.

물려받은 이야기는 증거가 아니다.

보호받는 이야기는 증거가 아니다.

직함, 시스템, 돈, 도달 범위, 두려움, 지위, 시간의 뒷받침을
받는 이야기라 해도 제대로 검토되고 뒷받침될 수 없다면
여전히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것에 권위를 주었는가?

누가 이것을 반복했는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누가 이것을 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가?

누가 이것을 질문으로부터 보호했는가?

어떤 증거가 이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이것과 모순되는가?

이것에 이익이 제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증거인가?

아니면 이것은 물려받은 믿음인가?

증거 기준이 없으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 이야기 들에 관해 글을 쓰고, 보호하거나, 다음 세대에 넘긴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직함, 권위, 보수를 받는 역할은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직함을 믿도록 배운다.

그들은 권위를 믿도록 배운다.

그들은 공식적 역할을 믿도록 배운다.

그들은 시스템을 믿도록 배운다.

그들은 정보를 말하고, 집행하고, 가르치고, 제시하거나 반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을 믿도록 배운다.

그러나 직함은 증거가 아니다.

권위는 증거가 아니다.

보수를 받는 역할은 증거가 아니다.

공식 직위는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어떤 증거가 이 직함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이 권위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이 역할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이 시스템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가?
 이것이 믿어지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것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누가 이것을 반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누가 이것을 집행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누가 이것을 보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증거가 요청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모든 직함, 역할, 시스템, 권위를 자동으로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증거로 착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증거 기준은 사람들에게 권위도 여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직함도 여전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스템도 여전히 검토되어야 한다.
 보수를 받는 역할도 여전히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기준이 어디에나 적용되어야 한다.

시스템, 출처, 증거

하나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시스템이 진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것은 출처와 기원에 직접 연결된다.

출처와 기원은 묻는다:

이 시스템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가?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어떤 행동을 보여 왔는가?

그것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반복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숨기는가?

그것은 무엇을 허용하는가?

그 다음 증거 기준은 묻는다:

어떤 증거가 시스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그 주장들과 모순되는가?

어떤 증거가 빠져 있는가?

이의 제기 후 어떤 증거가 제시되는가?

그 증거는 진실을 보여 주는가?

아니면 그것은 권위, 순응, 반복, 보호만 보여 주는가?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진실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거나, 보호되었다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 낸 정보, 직함, 규칙, 기록, 권위, 서사는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시스템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시스템이 강력하다는 것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시스템이 공식적이라는 것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시스템이 세대를 거쳐 반복된다는 것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시스템이 돈, 지위, 권위, 두려움, 힘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어떤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그것과 모순되는가?

어떤 증거가 빠져 있는가?

어떤 증거가 무시되었는가?

그 시스템은 어떤 행동을 보여 주는가?

그 시스템은 이의 제기를 받으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답하는가?

그것은 바로잡는가?

그것은 회피하는가?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가?

그것은 진실을 만들어 내는가?

아니면 그것은 순응을 만들어 내는가?

여기에서 증거 기준은 세계 환경과 직접 연결된다.

증거는 진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적용된다.

그것은 규칙에 적용된다.

그것은 권위에 적용된다.

그것은 직함에 적용된다.

그것은 행동에 적용된다.

그것은 서사에 적용된다.

그것은 반복되는 패턴에 적용된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제시에 적용된다.

그것은 반대 서사에 적용된다.

그것은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선택되거나, 만들어진 자료에 적용된다.

이것이 증거 기준이 교육에서 부재했던 경로 중 하나인 이유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진실, 증거, 일관성,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도록 배울 수 있다.

증거 기준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가 받아들여진 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수용에서 검토로 이동하기 시작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해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반복된 정보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시간에 걸친 증거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정보, 직함, 권위, 보수를 받는 역할, 시스템, 기록된 문서, 반복된 이야기, 물려받은 믿음, 두려움에 기반한 제시, 반대 서사, 그리고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선택되거나, 만들어진 자료가 자동으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증거는 질문과 검토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이 부분은 증거를 시간에 걸쳐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로 이동한다.

증거 기준은 한 순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것을 검토한다.

하나의 진술은 오도할 수 있다.

하나의 기록은 불완전할 수 있다.

하나의 설명은 선택적일 수 있다.

하나의 답변은 더 넓은 패턴을 피할 수 있다.

뒤늦은 진술은 실시간으로 드러난 것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증거가 시간에 걸쳐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며 무엇이 보여졌는가?

언제 그것이 보여졌는가?

그것은 실시간으로 보여졌는가?

그것은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나중에 설명되었는가?

나중의 설명은 실시간 증거와 일치하는가?

증거는 일관성을 유지했는가?

행동은 일관성을 유지했는가?

이야기는 바뀌었는가?

설명은 바뀌었는가?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는가?

모순이 나타났는가?

증거가 추가되었는가?

증거가 제거되었는가?

증거가 무시되었는가?

이의 제기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뒤늦은 설명이 순서대로 제시된 실시간 증거를 결코
덮어쓰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더 긴 패턴이 다른 것을 보여 줄 때 진실이
하나의 고립된 순간에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간에 걸친 증거는 사람들이 패턴을 보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순을 보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이 보호되는지를 보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이 회피되는지를 보도록 돕는다.
그것은 말, 행동, 기록, 시점,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사람들이
보도록 돕는다.

따라서 증거 기준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서로 단절된 정보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순서의 일부로 검토하도록 가르친다.
증거로서의 행동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교되어야 한다.
행동은 진술이 숨기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행동은 직함이 보호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행동은 시스템이 회피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행동은 돈, 의존, 두려움, 지위, 평판, 유인이 무엇을
형성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진실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시스템은 자신이 정의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기관은 자신이 돌봄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를 받는 역할은 자신이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직함은 자신이 권위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기준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행동은 말과 일치하는가?

행위는 주장과 일치하는가?

시스템은 이의 제기를 받으면 답하는가?

권위는 증거를 제시받으면 바로잡는가?

보수를 받는 역할은 진실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지위, 시스템, 돈, 평판, 서사를 보호하는가?

침묵은 주장과 모순되는가?

회피는 주장과 모순되는가?

지연은 주장과 모순되는가?

제거, 차단, 묵살, 처벌은 주장과 모순되는가?

시간에 걸친 행동은 가장 명확한 증거 경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행동은 사람과 시스템이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갈라지면, 증거 기준은 그 분리를 질문해야 한다.

주장이 한 가지를 말하지만 행동이 반복해서 다른 것을 보여
준다면 그 행동은 검토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 후의 증거

증거 기준은 정보에 이의가 제기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많은 주장은 증거가 요청되기 전까지는 강해 보인다.

많은 시스템은 답변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진실해 보인다.

많은 직함은 그 주장이 검토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만해 보인다.

많은 서사는 모순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의 제기는 증거 기준을 드러낸다.

증거는 질문받는 것을 환영한다. 질문하기가 참인 것을 강화하고, 약한 것, 빠져 있는 것, 모순되는 것,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는 흔히 질문하기가 제대로 뒷받침될 수 없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질문에 저항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증거가 요청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증거가 제공되는가?

질문에 답하는가?

문제가 바로잡히는가?

모순이 다뤄지는가?

증거가 무시되는가?

질문하는 사람이 공격받는가?

침묵이 사용되는가?

증거 대신 권위가 사용되는가?

진실 대신 절차가 사용되는가?

사람들이 질문을 멈출 때까지 문제가 지연되는가?

증거를 검토하는 대신 시스템이 보호되는가?

이의 제기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다. 반응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답변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바로잡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

회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침묵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모순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보호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복되는 무응답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 기준은 사람들에게 원래의 주장뿐 아니라 그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때 뒤따르는 행동도 검토하도록 가르친다.

증거, 타임라인, 반응

증거 기준은 또한 사람들이 타임라인과 반응을 통해 증거를 따라가도록 요구한다.

증거는 언제 보여졌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보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그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분리되어 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것은 언제 보여졌는가?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졌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것을 받았는가?

누가 이것을 보았는가?

누구에게 이의가 제기되었는가?

누가 답할 기회를 가졌는가?

누가 바로잡을 기회를 가졌는가?

누가 반박할 기회를 가졌는가?

누가 침묵했는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행동이 뒤따랐는가?

어떤 패턴이 계속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가 그 타임라인에서 분리될 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보았고, 누가 받았고, 누가 답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무시할 때에도 증거는 약화될 수 있다.

실시간 증거는 당시 무엇이 놓였고, 보여졌고, 기록되었고, 이의 제기되었거나 보이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뒤늦은 설명은 실시간으로 드러난 것과 대조하여 검토해야 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중의 설명은 실시간 증거와 일치하는가?

나중의 진술은 보여졌던 것을 다시 쓰는가?

나중의 기록은 이의가 제기되었던 것을 회피하는가?

나중의 설명은 맥락을 제거하는가?

타임라인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가시화된 뒤의 행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아니면 모순되는가?

진정한 증거 기준은 무언가가 존재하는지만 묻지 않는다.

그것은 더 넓은 기록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묻는다.

그것은 증거를 순서대로 놓았을 때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묻는다.

그것은 타임라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그것은 가시화된 뒤의 행동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모순되는지를 묻는다.

이것이 사람들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증거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제시된 것, 숨겨진 것, 빠진 것, 모순된 것

증거 기준은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과 제시되지 않은 것을
비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눈앞에 놓인 증거에 이끌린다.

그러나 빠진 것도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숨겨진 것도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모순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질문으로부터 보호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가?

무엇이 제시되지 않는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무엇이 뒷받침되지 않는가?

무엇이 모순되는가?

무엇이 보호되는가?

무엇이 회피되는가?

무엇이 제거되었는가?

무엇이 답변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선택된 증거에 이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머지는 숨겨진 채 그림의 한 부분만 제시받을 수 있다.

그들은 행동이 그것과 모순되는데도 하나의 진술만 제시받을 수 있다.
그들은 타임라인이 무시되는데도 하나의 기록만 제시받을 수 있다.
그들은 증거가 빠져 있는데도 권위만 제시받을 수 있다.
그들은 뒷받침이 없는데도 자신감만 제시받을 수 있다.
증거 기준은 사람들이 선택된 제시를 넘어 보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시된 것을 빠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모순되거나, 회 피되거나, 보호되는 것과 비교하도록 돕는다.

증거 제시, 두려움, 복종

증거 기준은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도 질문해야 한다.

증거를 제시하는 메커니즘이 강력할수록 증거 자체에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접하고 그 두려움의 환경 자체를 증거로
취급하도록 이끌릴 수 있다.

두려움은 긴급성을 만들 수 있다.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 수 있다.

두려움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람들이 약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선택되었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기 전에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람들이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직함, 시스템, 보수를 받는 역할, 공식 진술,
반복되는 경고, 대중의 압력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증거가 아니다.

긴급성은 증거가 아니다.

공식적 압력은 증거가 아니다.

반복되는 경고는 증거가 아니다.

보수를 받고 하는 순응은 증거가 아니다.

대규모 반복은 증거가 아니다.

증거 기준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증거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두려움을 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그것에 붙어 있는가?

어떤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증거가 빠져 있는가?

어떤 증거가 모순되는가?

어떤 증거가 질문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움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순응하도록 밀리고 있는가?

이것은 정서적 영향, 서사 대 현실, 심리적 영향과 겹치지만, 증거 기준이 두려움이 증거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되는지를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

반대 서사와 증거 기준

증거 기준은 반대 서사도 질문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의 거짓 서사를 보고 그것을 거부한 뒤, 첫 번째 서사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반대 서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한다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반대 서사도 여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 서사도 여전히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 서사도 여전히 도달 범위를 받을 수 있다.

반대 서사도 여전히 통제될 수 있다.

반대 서사도 여전히 사람들을 증거 없이 믿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를 빠져나와 곧바로 또 다른 만들어진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증거 기준은 서사와 반대 서사 모두를 질문해야 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증거가 반대 서사를 뒷받침하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그것에 도달 범위를 주었는가?

그것이 믿어짐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증거를 검토하도록 돕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의 믿음에서 다른 믿음으로 옮기는가?

그것은 출처와 기원을 질문하는가?

그것은 증거 기준을 질문하는가?

그것은 유인과 이득을 질문하는가?

그것은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가?

증거 기준은 사람들이 하나의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을 또 다른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경로는 하나의 서사에서 다른 서사로 가는 것이 아니다.

경로는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에서 증거 기반 질문하기, 보기, 이해, 학습, 독립적 사고로 가는 것이다.

AI, 만들어진 증거, 출처의 역사

증거 기준은 또한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요약되거나, 선택되거나, 재구성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증거에 질문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만들어진 증거가 더 설득력 있어질수록 출처와 기원은 더 중요해진다.

AI는 거짓 증거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AI는 거짓 이야기를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AI는 거짓 이미지, 목소리, 문서, 요약, 설명을 신뢰할 만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AI는 증거를 숨기거나, 재구성하거나, 요약하거나, 선택하거나, 왜곡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AI가 생성하거나 AI를 통해 제시된 정보는 검토 없이 증거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출처와 기원으로 직접 다시 연결된다.

출처와 기원은 묻는다:

이 증거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언제 처음 존재했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그것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것은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만들어 내는 도구가 존재하기 전에 보였는가?

그 다음 증거 기준은 묻는다:

그 역사는 검토될 수 있는가?

타임라인은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원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증거를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요약되거나, 재구성된 자료와 분리할 수 있는가?

AI 조작 이전부터 명확한 역사를 가진 증거는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만들어 내는 도구가 존재한 뒤에야 나타나는 증거와 다르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무엇이 이 증거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생성되었는가?

그것은 변경되었는가?

그것은 요약되었는가?

그것은 선택되었는가?

그것은 맥락에서 떼어졌는가?

원본을 검토할 수 있는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가?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가?

행동은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더 넓은 증거 기록은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증거 기준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증거처럼 보이는 만들어진 제시를 보고 있는지를 질문하도록 도와야 한다.

증거 기준과 인류 발전

증거 기준은 개별 주장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증거 기준은 증거를 질문하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제시를 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시가 진실과 혼동되고, 두려움이 증거와 혼동되고, 권위가 진실과 혼동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증거와 혼동되고,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증거 기준은 이 경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이해로 들어가는 경로를 보호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전에 속도를 늦추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을 검토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비교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시간에 걸쳐 증거를 따라가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의 제기 후의 반응을 질문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기반한 제시를 질문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반대 서사를 질문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증거를 질문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가르친다.
 이것이 증거 기준이 출처와 기원에서 이어받는 방식이다.
 출처와 기원은 사람들이 정보, 시스템, 이야기, 직함, 행동, 반복되는 패턴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질문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고, 제시되고, 반복되고, 보호되고, 이의
 는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증거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목적이 단순히 증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적은 세계 환경 자체에서 드러나는 증거에서 배우는 인류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증거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를 물려받아 그것을 진실로 반복할 수 있다.

증거 기준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뒷받침되는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이 모순되는지, 무엇이 보호되는지, 무엇이 만들어진 것인지, 무엇이 두려움에 기반한 것인지, 무엇을 더 질문해야 하는지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증거 기준이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 안에 속하는 이유다.

섹션 3 – 유인과 이득

유인과 이득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되는 대신 세계 환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2는 증거가 주장되고, 반복되고, 보호되고, 제시되거나, 집행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 사람들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이제 섹션 3에서는 유인과 이득을 다룬다.

유인과 이득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행동이 보상받고, 보호되고, 의존의 대상이 되거나, 잃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인간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행동을 보도록 배운다.

그들은 무엇이 그 행동을 움직이는지를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보도록 배운다.

그들은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유인을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그 시스템이 계속됨으로써 무엇을 얻는지를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흔히 개인을 판단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그 개인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유인과 이득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가르친다:

누가 얻는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

누가 이것에 의존하는가?

누가 이것을 보호하는가?

누가 이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이것으로 보상받는가?

누가 이것으로 돈을 받는가?

누가 이것이 계속되도록 기여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세계 환경 안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유인에 의해 형성된 행동을 통해 그들은 그것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것이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사람들이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유인이 그것을 다시 만드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만든다.

인류는 자신이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세계를 자주 다시 만든다.

이것이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돈, 의존, 세계 환경

돈은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다.

돈은 의존을 만들 수 있다.

의존은 순응을 만들 수 있다.

순응은 침묵을 만들 수 있다.

침묵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계속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지불 수단으로만 생각하도록 배운다.

그러나 돈은 행동도 형성한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반복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호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에 질문하기를 피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집행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정상화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누가 돈을 받고 있는가?

누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그들은 무엇을 질문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그들은 무엇을 반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그들은 무엇을 집행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그들은 무엇을 보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그들이 이익을 제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폭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돈이 모든 생각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

의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유인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보상, 소속, 어울리기

사람들은 돈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음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수용.

인기.

인정.

관심.

지위.

승인.

소속.

편안함.

안전.

비판 피하기.

거부 피하기.

배제 피하기.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묻지 않는다:

“이것은 참인가?” 대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여전히 소속될 수 있을까?” 혼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해하려는 욕구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승인을 얻고, 배제를 피하고, 소속을 유지하며, 자신이 의존한다고 믿는 환경에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점차 소속이 이해보다 더 중요해지도록 허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진실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울리려고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멈추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어떤 행동들이 복사되고 있는가?

어떤 행동들이 정상화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행동을 물려받는다.

사람들은 다음을 따라 한다:

언어.

의견.

유행.

생활방식.

외모.

태도.

습관.

사회적 행동.

온라인 행동.

만드시 그것들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정상적이고, 인기 있고, 성공적이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

어울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상화는 반복이 될 수 있다.

반복은 물려받은 행동이 될 수 있다.

물려받은 행동은 받아들여진 현실이 될 수 있다.

행동이 더 오래 반복될수록 그 뒤의 메커니즘은 더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 자체가 진실의 외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멈출 수 있다.

피상적인 환경

현대의 환경은 사람들이 이해보다 외관을 우선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음에 몰두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얼마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지.

얼마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지.

얼마나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현실을 숨기면서 자신을 이상화한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가짜 미소가 진정한 웰빙을 대신할 수 있다.

보여 주는 성공이 진실을 대신할 수 있다.

온라인 정체성이 진정성을 대신할 수 있다.

이미지가 이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끼면서도 연결되어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은 불행하면서도 행복해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외관이 진실보다 더 중요해지면 피상적인 환경이 발달할 수 있다.

인기, 지위, 비교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팔로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이것은 이해 없는 끝없는 비교의 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인기는 증거가 아니다.

관심은 증거가 아니다.

팔로워 수는 증거가 아니다.

지위는 증거가 아니다.

널리 보인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무언가를 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가시성을 진실로, 인기를 정확성으로, 영향력을 신뢰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

두려움, 침묵, 소속

사람들은 질문하기가 소속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음을 두려워할 수 있다:

비판.

조롱.

거부.

배제.

창피함.

고립.

기회의 상실.

혼자 서는 것.

두려움은 침묵을 장려할 수 있다.

침묵은 반복을 보호할 수 있다.

반복은 정상화될 수 있다.

정상화된 행동은 미래 세대에 물려질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순환은 계속될 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유인이 진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인이 그 행동을 보호하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교육, 교사, 세계의 반복

교육은 유인과 이득의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다.

교사들은 흔히 자신이 그 안에서 배웠던 바로 그 교육 시스템의 산물이다.

그들은 그 안에서 교육받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훈련받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보수를 받는다.

그들은 그 안에서 평가받는다.

그들은 그 안의 역할에 배치된다.

그들은 그 안에서 가르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그 안에서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그 안에서 정보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들에게 세계 환경 자체를 질문하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를 가르치도록 교육받지 않는다.

이것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은 같은 유인 중심 환경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계를 반복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교육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도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교육은 무엇을 보상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가?

교육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이들이 세계 환경 자체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유인과 이득이 중요한가

유인과 이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 반복을 보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왜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묻는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누가 의존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누가 잃는가?

이 유인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는가?

이 행동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 아래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이 했던 일을 자신이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이 사람들이 유인 중심 시스템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유인과 이득 시간에 걸친 유인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사람들이 세계 환경 안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유인에 의해 형성된 행동을 통해 그들은 그것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제 이 부분은 유인이 시간에 걸쳐 어떻게 계속되는지로 이동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인을 즉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걸친 행동은 흔히 그것을 드러낸다.

한 사람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반복해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은 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다른 것을 보호할 수 있다.

한 조직은 중립을 주장하면서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나의 역할은 의무를 주장하면서 반복해서 순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보수를 받는 직위는 진실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의존하는 시스템을 반복해서 보호할 수 있다.

시간에 걸친 유인은 한 순간만으로는 숨길 수 있는 패턴을 사람들이 보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며 어떤 행동이 반복되었는가?

어떤 결과가 반복되었는가?

어떤 유인이 계속 보호되는가?

어떤 유인이 계속 숨겨지는가?
 누가 반복해서 이익을 얻는가?
 누가 반복해서 손실을 피하는가?
 누가 반복해서 돈을 얻는가?
 누가 반복해서 지위를 얻는가?
 누가 반복해서 직위를 유지하는가?
 누가 반복해서 책임을 피하는가?
 누가 같은 환경이 계속되도록 반복해서 기여하는가?
 시간에 걸친 패턴은 진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인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증거 기준에 직접 연결된다.
 증거 기준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어떤 유인이 그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물려받은 역할과 반복되는 기여
 유인은 역할을 통해 물려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떠나거나, 은퇴하거나, 죽거나, 교체된 뒤 그 역할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단지 일을 맡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역할에는 이미 하나의 패턴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는 반복되는 행동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는 반복되는 침묵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는 반복되는 보호가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는 반복되는 집행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는 반복되는 복종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는 반복되는 가르침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는 반복되는 순응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 역할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뒤 이전 사람들이 계속했던
것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이 세계 환경이 세대를 통해 반복될 수 있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그것에 기여하기 위해 원래의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들은 하나의 역할을 물려받아 그 메커니즘을 계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이 그 역할에 들어오기 전에 이 역할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냈는가?

이 역할은 지금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떠난 뒤 이 역할은 어떤 행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 역할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그 역할은 무엇을 반복하는가?

그 역할은 무엇을 억제하는가?

그 역할은 사람들이 무엇에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역할은 무엇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단지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이 했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반복되는 해악, 반복되는 침묵, 반복되는 순응, 반복되는 시스템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 보호, 유인

침묵은 유인의 가장 강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침묵은 행동이 될 수 있다.

침묵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돈을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권위를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의존을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평판을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직위를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서사를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잘못된 행위를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누가 침묵을 유지하는가?

그 침묵에 의해 무엇이 보호되고 있는가?

누가 그 침묵으로 이익을 얻는가?

그 침묵이 끝나면 누가 읽는가?

누군가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어떤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가?

어떤 유인이 사람들이 침묵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가?

침묵은 무엇이 계속되도록 허용해 왔는가?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자신의 평판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시스템 안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자신이 물려받은 역할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정상화가 질문하지 않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침묵은 검토해야 할 행동이 된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자신이 얻는 것 때문에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도 행동한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이득 자체만큼 강하게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돈.

고용.

지위.

직위.

소속.

승인.

보호.

권위.

영향력.

안전.

평판.

미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질문하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질문을 멈출 수 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침묵을 만들 수 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따르기를 만들 수 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 수 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은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역할은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시스템은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멈추면 무엇이 바뀌는가?

사람들이 순응하는 것을 멈추면 무엇이 바뀌는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바뀌는가?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이 했던 일을 하는 것을 멈추면 무엇이 바뀌는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힘이 필요해지기 훨씬 전부터 순응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진실이 항상 유인을 이겨낼 만큼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행동을 보호하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집단적 기여와 반복되는 세계

세계 환경은 보통 한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메커니즘에 작은 조각들을 기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 유지된다.

한 사람은 가르친다.

한 사람은 집행한다.

한 사람은 반복한다.

한 사람은 승인한다.

한 사람은 글을 쓴다.

한 사람은 침묵한다.

한 사람은 따른다.

한 사람은 보호한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 행동들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집단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하나의 전체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다음만 볼 수 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과제.

자신의 임금.

자신의 지시.

자신의 책임.

자신의 생존.

그러나 세계 환경은 같은 메커니즘의 작은 부분을 반복하는 많은 사람들의 결합된 기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도록 돕고 있는가?

내 행동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같은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유인과 이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교육, 교사, 유인

교육은 다음 세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인과 이득을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같은 유인 중심 시스템의 산물이다.

그들은 그 안에서 교육받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훈련받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보수를 받는다.

그들은 그 안에서 평가받는다.

그들은 그 안의 역할에 배치된다.

그들은 그 안에서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그 안에서 정보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실제 세계 환경을 질문하도록 가르칠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정보의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으로 보상받고, 무엇에 질문하지 않도록 억제되는지를 형성하는 유인 구조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작동하는 유인 중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도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교육은 무엇을 보상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정상화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억제하고 있는가?

교육은 무엇을 질문하지 못하고 있는가?

교사들은 무엇을 전달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가?

교사들은 무엇을 평가하도록 훈련받는가?

아이들은 무엇 안에서 기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교사들이 시스템 자체에 질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이들이 세계 환경 자체에 질문하도록 가르침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교육 안의 유인이 검토되지 않으면 교육은 제대로 개선될 수 없다.

교사들이 같은 시스템을 반복하는 역할에 보수를 받고, 훈련받고, 평가받고, 배치된다면, 교육은 세계 환경에서 배우기보다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스템, 유인, 반복되는 결과

시스템은 유인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다.

사람들은 독립적이라고 믿으며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은 의존을 통해 점차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유인이 검토되지 않은 채 오래 남을수록 그것은 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시스템은 침묵을 보상할 수 있다.

시스템은 순응을 보상할 수 있다.

시스템은 충성을 보상할 수 있다.

시스템은 반복을 보상할 수 있다.

시스템은 집행을 보상할 수 있다.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

시스템은 질문하기를 처벌할 수 있다.

시스템은 폭로를 처벌할 수 있다.

시스템은 진실을 처벌할 수 있다.

시스템은 거부를 처벌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시스템은 어떤 행동을 보상하는가?

시스템은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가?

시스템은 어떤 행동을 처벌하는가?

시스템은 어떤 행동을 보호하는가?

시스템은 어떤 결과를 반복해서 만들어 내는가?

어떤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가?

어떤 유인이 그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유인을 질문하지 않은 채 결과를 고치려고 한다.

유인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흔히 바뀌지 않는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흔히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는 세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믿으면서도 같은 세계를 반복할 수 있다.

유인과 인류 발전

유인과 이득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유인이 보이지 않는 채 남아 있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이 했던 일을 계속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소속이 진실보다 더 강해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인기가 이해를 대신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피상적인 환경이 진정성을 대신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 질문하기를 멈추게 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정상화가 반복을 받아들여진 현실로 바꾸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시스템이 이해 대신 반복을 보상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교육이 아이들에게 세계 환경을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준비시키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이 의존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방어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묻는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누가 의존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누가 잃는가?

누가 돈을 받는가?

누가 침묵하는가?

누가 따르는가?

누가 정상화하는가?

이 유인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는가?

이 행동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 아래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유인이 보이게 되면 행동이 보이게 된다.

행동이 보이게 되면 기여가 보이게 된다.

기여가 보이게 되면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해가 가능해지면 인류는 같은 세계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수 있다.

섹션 4 – 성격과 일관성

성격과 일관성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되는 대신 세계 환경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2는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사람들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3은 어떤 유인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고, 반복하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이제 섹션 4에서는 성격과 일관성을 다룬다.

성격과 일관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어떤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전에는 사람, 시스템, 조직, 환경, 세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듣도록 배운다.

그들은 행동을 제대로 연구하도록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직함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일관성을 제대로 검토하도록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흔히 약속을 믿도록 배운다.

그들은 패턴을 제대로 질문하도록 배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흔히 고립된 순간을 판단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반복되는 행동에서 배우도록 배우지 못한다.

성격과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가르친다: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보상받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보호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회피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시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어떤 행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가?

어떤 행동이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성격은 한 순간이 아니다.

성격은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드러나는 행동이다.

일관성은 하나의 진술이 아니다.

일관성은 시간에 걸쳐 말, 행동, 결과가 반복해서 일치하는 것이다.

성격은 반복되는 행동이 말, 이미지, 평판, 제시가 흔히 숨기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큰 학습 도구 중 하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반복되는 행동이 고립된 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세계 환경은 이미 인류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언제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제시되는 것에 어떻게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거짓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모순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침묵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의존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이 행동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언론이 서사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가 증거를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질문하기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 어떻게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제시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행동을 보고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들은 모순을 보고 분노에서 멈출 수 있다.

그들은 거짓을 보고 비난에서 멈출 수 있다.

그들은 시스템을 보고 표면적 설명에서 멈출 수 있다.

그들은 반복되는 문제를 보고도 그것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성격과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검토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다음만 묻지 말라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한 다음과 같이 묻도록 한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패턴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세계 환경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인류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세계가 진짜 학교인 이유는 세계 환경이 끊임없이 행동, 모순, 반복, 유인, 침묵, 의존, 권위, 두려움, 결과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는 배울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것에서도 배울 수 없다.

말, 행동, 패턴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행동은 말이 숨기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말은 연습될 수 있다.

말은 선택될 수 있다.

말은 반복될 수 있다.

말은 보호될 수 있다.

말은 제시될 수 있다.

행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숨기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줄 수 있다.

행동은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가르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말은 행동과 일치하는가?

행위는 주장과 일치하는가?

결과는 약속과 일치하는가?

행동은 시간에 걸쳐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가?

행동은 누가 보고 있는지에 따라 바뀌는가?

행동은 누가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 바뀌는가?

반복되는 행동은 고립된 진술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모순을 드러낼 수 있다.

패턴은 흔히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일관성은 흔히 평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행동은 흔히 직함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사람들은 고립된 순간 대신 패턴을 연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동은 결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성인이 된다.
미래 세대는 행동을 물려받는다.
그 뒤 미래 세대는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모든 반복되는 행동에는 개인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다.
반복되는 행동은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상화는 유산이 될 수 있다.
유산은 받아들여진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누가 이 행동에서 배우고 있는가?

누가 이 행동을 물려받을 것인가?

이 행동은 미래의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인가?

성격과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개인을 넘어 생각하고 더 넓은 환경에서 배우기 시작하도록 가르친다.

평판보다 성격

사람들은 흔히 평판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러나 평판이 자동으로 성격은 아니다.

평판은 만들어질 수 있다.

평판은 보호될 수 있다.

평판은 반복될 수 있다.

평판은 홍보될 수 있다.

평판은 물려받을 수 있다.

성격은 다르다.

성격은 행동을 통해 반복해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압력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얻을 것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잃을 것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실이 유인과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격은 유인이 관련될 때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성격과 일관성이 유인과 이득에 직접 연결되는 이유다.

시간에 걸친 일관성

일관성은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관성은 시간에 걸쳐 검토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질문하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관성은 행동이 그 주장들을 반복해서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시간에 걸쳐 어떤 행동이 보여졌는가?

어떤 패턴이 반복되었는가?

어떤 모순이 나타났는가?

어떤 행동이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는가?

상황이 바뀌면 어떤 행동이 사라지는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일관성은 흔히 가장 강한 증거 경로 중 하나가 된다.

이것은 증거 기준에 직접 연결된다.

증거 기준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일치한 채 유지되는지를 묻는다.

이미지 대 성격

사람들은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능숙해질 수 있다.

이미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성격은 행동이 반복해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미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미지는 보호될 수 있다.

이미지는 전시될 수 있다.

이미지는 홍보될 수 있다.

이미지는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자동으로 성격은 아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행동을 보고 있는가?

나는 제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일관성을 보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숨겨지고 있는가?

압력이 제거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압력이 더해지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반복해서 다른 것을 드러내는 동안에도 수년 동안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다.

사람, 시스템,
세계 환경

성격과 일관성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것은 다음에 적용된다:

사람.

교사.

부모.

학교.

정부.

언론.

기관.

시스템.

조직.

공동체.

환경.

사람들은 흔히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검토한다.

그들은 이것들이 반복해서 무엇을 하는지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보호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회피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보상받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정상화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물려지고 있는가?

인류가 배워야 할 행동으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성격과 일관성은 어디에나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 교사, 성격

교육도 성격과 일관성을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보의 출처가 된다.

아이들은 정보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행동에서도 배운다.

아이들은 관찰한다:

성인이 무엇을 하는지.

교사가 무엇을 하는지.

시스템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시스템이 무엇을 회피하는지.

시스템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시스템이 무엇을 반복하는지.

시스템이 무엇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 주는지.

이것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작동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가?

아이들은 어떤 행동으로 반복해서 보상받고 있는가?

아이들은 어떤 행동에 질문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억제되고 있는가?

아이들은 세계 환경을 반복하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은 그것에서 배우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아이들이 행동, 모순, 유인, 침묵, 반복되는 패턴을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에게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세계 환경을 물려받을 수 있다.

왜 성격과 일관성이 중요한가

성격과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반복되는 행동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계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적은 분노, 비난, 두려움, 끝없는 반대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세계 환경이 이미 보여 주고 있는 것에서 배우는 것이다.

세계 환경 자체가 교육 환경이 된다.

행동이 교훈이 된다.

모순이 교훈이 된다.

반복이 교훈이 된다.

환경 자체가 교사가 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그것에서 배우기 시작할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무엇이 그 행동을 보상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묻는다:

행동은 주장되는 것과 반복해서 일치하는가?

그 행동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그 모순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인류는 드러나고 있는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고립된 순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이 이미 보여 주고 있는 것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시간에 걸친 성격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성격과 일관성이 고립된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은 성격과 일관성이 시간에 걸쳐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이동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성격을 즉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걸친 행동은 흔히 그것을 드러낸다.

한 사람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반복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은 한 목적을 주장하면서 반복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조직은 중립을 주장하면서 반복해서 특정 행동을 보호할 수 있다.

한 기관은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반복해서 어려운 질문을 회피할 수 있다.

하나의 역할은 의무를 주장하면서 반복해서 순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시간에 걸친 성격은 고립된 순간이 숨길 수 있는 패턴을 사람들이 보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보여졌는가?

어떤 결과가 반복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가?

어떤 모순이 계속 나타나는가?

어떤 행동이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는가?

어떤 행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가?

어떤 행동이 누가 보고 있는지에 따라 바뀌는가?

시간에 걸친 패턴은 흔히 진술만으로 보는 것보다 성격을 더 정확하게 드러낸다.

모순과 인간 행동

모순은 성격을 이해하는 가장 강한 경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진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진실을 회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질문을 억제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반복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독립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순응을 보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디에서 말과 행동이 갈라지는가?

어떤 모순이 반복해서 나타나는가?

그 모순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턴이 계속되는가?

그 모순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

어떤 유인이 그 모순을 보호하고 있는가?

모순은 자동으로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모순은 검토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모순은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낼 수 있다.

세계 환경은 이미 인류에게 보여 주고 있다

세계 환경은 이미 인류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언제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류가 드러나는 것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순을 보고 비난에서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거짓을 보고 분노에서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보고 표면적 설명에서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문제를 보고 좌절에서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행동을 보고 정서적 반응에서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고도 그것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직 충분한 지식, 이해, 질문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흔히 잘못된 이해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다음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사건.

한 사람.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거짓.

하나의 모순.

하나의 결과.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다.

성격과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계속하도록 가르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드러내는가?

이것은 어떤 메커니즘을 드러내는가?

이것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 주는가?

이것은 어떤 모순을 나타내는가?

인류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목적은 끝없는 질문하기가 아니다.

목적은 이해다.

반응 대 학습

인류 발전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배

반응은 발전을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편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입장을 방어한다.

사람들은 입장을 공격한다.

사람들은 서사 안에 갇힌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반응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성격과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넘어가도록 가르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가?

인류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목적지는 반응이 아니다.

목적지는 이해다.

선택적 성격과 선택적 사고

사람들은 언제나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다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돈.

지위.

청중.

권위.

승인.

인기.

두려움.

이득.

손실.

사람들은 한 환경에서는 진실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환경에서는 진실을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를 질문하면서 다른 주제를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행동은 어디서나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가?

유인이 나타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압력이 나타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가치 있는 무언가가 위협에 놓이면 무엇이 바뀌는가?

성격은 유인과 압력이 충돌할 때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침묵, 참여, 반복되는 행동

성격은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성격은 침묵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침묵은 행동이 될 수 있다.

침묵은 보호가 될 수 있다.

침묵은 참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누가 침묵을 유지하는가?

무엇이 보호되고 있는가?

어떤 반복되는 행동이 계속되도록 허용되고 있는가?

어떤 진실이 회피되고 있는가?

어떤 모순이 무시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소속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승인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에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행동, 영향, 미래 세대

행동은 결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を 미친다.
시스템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성인이 된다.
미래 세대는 행동을 물려받는다.
그 뒤 미래 세대는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모든 반복되는 행동에는 개인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단지 작은 결정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수백만 개의 반복되는 행동은 하나의 전체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행동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미래 세대는 어떤 행동을 물려받을 것인가?

이 행동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인가?
교육, 교사, 성격

교육도 성격과 일관성을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정보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행동을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관찰한다:

성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권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침묵을 유지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기를 피하는지.

아이들은 점차 그 행동들을 자신도 물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을 형성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떤 행동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가?

아이들은 어떤 행동들을 반복해서 물려받고 있는가?

아이들은 어떤 행동들로 반복해서 보상받고 있는가?

아이들은 어떤 행동들에 질문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억제되고 있는가?

반복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채 남아 있다면 교육은 제대로 개선될 수 없다.

인간 의식과 세계 환경에서 배우기

인류 발전에서 가장 크게 부재했던 경로 중 하나는 이미 보이는 것에서 배우는 것이다.

인류는 끊임없이 다음을 목격하고 있다:

모순.

의존.

침묵.

권위.

두려움.

따르기.

정상화.

유인.

반복.

행동.

그러나 인류는 이 메커니즘들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사람들은 존재하는 가장 큰 학습 환경 안에 이미 서 있으면서도 흔히 누군가에게 가르침받기를 기다린다.

세계 환경 자체가 교훈이다.

세계 환경 자체가 증거다.

세계 환경 자체가 배울 기회다.

세계 환경 자체가 교사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그것에서 배우기 시작할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인류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하는 법을 배우면, 반응을 넘어 이해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성격과 인류 발전

성격과 일관성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반복되는 모순이 보이지 않는 채 남아 있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한 가지를 말하면서 반복해서 다른 것을 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이미지가 행동보다 더 중요해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평판이 일관성보다 더 중요해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이중 기준이 정상화된 채 남아 있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유인이 원칙을 반복해서 압도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반복되는 행동이 검토 없이 물려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아이들이 그 행동들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행동을 물려받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에서 배우는 대신 그것에 반응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무엇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묻는다:

행동은 주장되는 것과 반복해서 일치하는가?

그 행동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그 모순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인류는 드러나는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이 이미 보여 주고 있는 것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섹션 5 – 질문할 허락

질문할 허락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되는 대신 세계 환경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2는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사람들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3은 어떤 유인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고, 반복하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4는 반복되는 행동이 이미 인류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이제 섹션 5에서는 질문할 허락을 다룬다.

질문할 허락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따르고, 반복하고, 복종하고, 침묵하도록 가르치는 환경에 의해 형성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고 자체를 어떻게 올바르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사람들은 신뢰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사람들은 권위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어떤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운다.

사람들은 시스템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를 만든다.

사람들은 질문하기에 허용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권위로부터의 허용.

시스템으로부터의 허용.

교사로부터의 허용.

부모로부터의 허용.

고용주로부터의 허용.

정부로부터의 허용.

언론으로부터의 허용.

전문가로부터의 허용.

집단으로부터의 허용.

인기로부터의 허용.

사회적 수용으로부터의 허용.

자신을 둘러싼 세계 환경으로부터의 허용.

질문할 허락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가르친다:

나는 이것에 질문해도 되는가?

누가 나에게 허용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는가?

내가 질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가?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질문하기가 억제될 때 어떤 행동이 보호되는가?

사람들이 질문할 허락을 기다릴 때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는가?

질문할 허락은 질문을 하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멈추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질문할 허락은 사람들에게 허용 자체를 질문하도록도 가르친다.

조건화와 평생의 허용 구조

사람들은 흔히 평생 동안 허용을 구하도록 조건화된다.

아이들은 성인에게 허용을 구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허용을 구할 수 있다.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허용을 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에 허용을 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집단에 허용을 구할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에 허용을 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 자체에 허용을 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행동은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관찰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의 학습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들은 점차 눈앞에 드러나는 것에 질문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허용을 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허용 구조는 결국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누가 나에게 허용을 구하라고 가르쳤는가?
 나는 언제 허용을 구하기 시작했는가?
 나는 어떤 허용 구조를 물려받았는가?
 나는 내 자신의 학습 능력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배우기 전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가?

배울 허용을 기다리기

사람들은 존재하는 가장 큰 학습 환경 안에 이미 서 있으면서도 흔히 누군가에게 가르침받기를 기다린다.
 세계 환경은 이미 행동, 모순, 반복, 의존, 침묵, 권위, 유인, 두려움, 결과,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무엇이 중요한지 말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권위가 그것을 승인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언론이 그것을 보여 주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전문가가 그것을 설명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교사가 그것을 가르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집단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검토하기 전에 인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배우기 전에 허용을 기다릴 수 있다.

인류는 이미 보이는 세계에서 배우기 위한 허용을 흔히 기다린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계 환경 안에서 살면서도 그것에서 배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드러나는 것을 보고도 그것에 질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모순을 보고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설명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반복되는 행동을 보고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그것에 질문해도 된다고 승인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시스템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세계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것에서 배우기 위한 허용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눈앞에 드러나는 것에 질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누군가가 먼저 그것에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이 내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다른
출처가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세계가 진짜 학교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계에 질문할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세계에서 배울 수 없다.

권위, 승인, 위임된 사고

사람들은 권위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권위를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직함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역할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직위를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공식 진술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승인된 출처를 신뢰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이것은 위임된 사고를 만들 수 있다.

위임된 사고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역할, 시스템, 출처, 집단,
권위가 자신이 무엇을 질문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반복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때 일어난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경계 안에서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더 넓은 틀에는 질문하지 않은 채 한 가지에는 질문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다른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서사를 떠나 다른 서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신뢰하는 누군가가 승인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결론에서 멈출 수 있다.

질문할 허락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가르친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출처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도록 두고 있는가?

나는 틀 자체를 질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어진 틀 안에서만 질문하고 있는가?

나는 증거를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승인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이해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권위를 따르고 있는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면 독립적 사고는 발전할 수 없다.

두려움, 소속, 어울리기

사람들은 질문하기가 소속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스스로 질문을 멈춘다.

그들은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승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일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소속은 질문하기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승인은 진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움은 이해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어울리고 싶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속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배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따르는지 이해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은 유인과 이득에 직접 연결된다.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피하는 이유가 무언가가 참이라고 믿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그들은 질문하기가 자신이 의존하거나, 속해 있거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내가 이것에 질문하면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배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가?

나는 검토했기 때문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소속되고 싶기 때문에 동의하는가?

나는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반복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하는가?

질문할 허락은 사람들에게 진실과 소속을 분리하도록 가르친다.

따르기, 순응, 사회적 수용

인간의 환경은 흔히 따르기를 보상한다.

사람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순응하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받아들여진 경계 안에 머무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순응은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상화는 물려받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려받은 행동은 받아들여진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회적 수용을 진실로 착각할 수 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무언가가 옳다고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이유로 무언가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

그들은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무언가에 질문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들은 승인, 도달 범위, 지위, 인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들은 떨어져 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틀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혼자인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따르는가?

나는 증거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가?

나는 검토했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피하는가?

아니면 그것에 질문하면 내가 남들과 떨어져 서게 되기 때문인가?

따르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순응은 진실이 아니다.

사회적 수용은 증거가 아니다.

허용 구조는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이 계속되도록 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질문할 허락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 승인을 의존하는 동안에는 독립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교육, 질문할 능력을 잃는 것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한다.

아이들은 흔히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왜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묻는다.

그들은 왜 규칙이 존재하는지 묻는다.

그들은 왜 성인이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것을 하는지 묻는다.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묻는다.

그러나 세계 환경은 아이들이 점차 질문하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다.

아이들은 조용히 하도록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받아들이도록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반복하도록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복종하도록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왜라고 묻는 것을 멈추도록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질문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권위에 질문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더 나은 질문보다 정답이 더 중요하다고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이해보다 승인이 더 중요하다고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받아들여진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렵고, 방해가 되고, 문제적이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 수도 있다.

교육은 흔히 질문하기보다 답을 더 많이 보상한다.

교육은 흔히 검토보다 반복을 더 많이 보상한다.

교육은 흔히 독립적 사고보다 복종을 더 많이 보상한다.

교육은 흔히 아이들에게 세계 환경을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준비시킨다.

이것이 질문할 허락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다.

아이들이 질문할 능력을 잃으면, 무엇이 세계 환경을 형성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환경을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반복되는 패턴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아이들은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은 대답하는 법만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검토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은 반복하는 법만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질문할 허락이 필요한 이유는 질문하기가 보기, 이해, 학습, 독립적 사고로 들어가는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 질문할 허락이 중요한가

질문할 허락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세 계에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허용 구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심리적 경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물려받은 경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평생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지도자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시스템을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전문가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권위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행동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허용을 기다리는 동안 인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세계 환경의 학습자가 되기 위한 허용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무엇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반복해서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묻는다:

누가 또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질문하기에는 허용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었는가?

사람들이 질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하기가 억제될 때 어떤 행동이 보호되는가?

사람들이 질문할 허락을 기다릴 때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계를 보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위임된 사고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기반한 침묵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순응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회적 승인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수용에서 질문하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질문하기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자기검열과 내부의 허용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사람들이 질문하기에는 허용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제 이 부분은 세계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 중 하나로 이동한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누군가가 그러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멈춘다.

그들은 자신을 검열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침묵시킨다.

그들은 자신의 관찰을 스스로 묵살한다.

그들은 모순을 무시한다.

그들은 어려운 질문을 피한다.

그들은 호기심을 억누른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이것에 질문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저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물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나는 저것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남들과 떨어져 서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점차 자기 자신의 학습 장벽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스스로를 멈추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나에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는가?

나는 어떤 결과를 상상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편안함, 승인, 소속, 의존을 보호하고 있는가?

질문할 허락은 사람들에게 학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학습을 멈추는 내부 장벽

질문할 허락은 사람들에게 허용 자체를 질문하도록도 가르친다.

보이지 않는 허용 구조

허용 구조는 결국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려받은 경계 안에서 여전히 기능하면서도 자신이 자유롭게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은 승인된 질문 영역 안에 여전히 머물면서도 자신이 질문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면서도 자신이 독립적이라고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심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허용 구조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허용을 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에 질문할 수 있는가?

누가 그 경계를 정했는가?

나는 무엇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는가?

나는 무엇에 질문하지 말라고 배웠는가?

무엇에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내가 그것에 질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가?

보이지 않는 허용 구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심리적 경계가 될 수 있다.

집단 행동과 집단적 허용

인간은 사회적 학습자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배운다.

사람들은 집단을 관찰한다.

사람들은 집단을 따라 한다.

사람들은 집단을 반복한다.

사람들은 집단을 따른다.

사람들은 집단을 방어한다.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수용을 구한다.

따라서 집단은 집단적 허용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면 사람들은 질문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면 사람들도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르면 사람들도 따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면 사람들도 반복할 수 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피할 수 있다.

집단적 행동은 개인의 이해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집단은 어떤 행동을 보상하는가?

이 집단은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가?

이 집단은 어떤 행동을 정상화하는가?

이 집단은 어떤 행동을 보호하는가?

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집단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는가?

집단은 자동으로 이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집단은 반복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침묵, 복종, 참여

침묵은 세계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가장 강한 허용 메커니즘 중 하나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침묵은 참여가 될 수 있다.

침묵은 보호가 될 수 있다.

침묵은 기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남들과 떨어져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침묵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복종이 보상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누가 그 침묵으로 이익을 얻는가?

어떤 행동이 보호되고 있는가?

어떤 모순이 계속되도록 허용되고 있는가?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복종이 자동으로 이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복종은 자동으로 진실이 아니다.

참여가 항상 능동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

허용 구조는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이 계속되도록 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피상성, 이미지, 사회적 수용

사람들은 흔히 이해를 발전시키는 법보다 이미지를 관리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데 능숙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데 능숙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데 능숙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데 능숙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는 데 능숙해질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은 제시를 보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기 있다고 믿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숨길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삶을 제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진실 대신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숨기면서 수년 동안
행복한 척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조차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간힐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는가?

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하고 있는가?

나는 세계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안에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피상성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만들어 온 이미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는 허용

질문하기의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장벽 중 하나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남들과 떨어져 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의견 불일치를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틀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혼자인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용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속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부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것은 순응하라는 막대한 압력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이해하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울리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소속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이해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수용을 따르고 있는가?

인류 발전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기여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지도자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시스템을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전문가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권위를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행동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세계 환경은 수백만 개의 개별 기여에 의해 집단적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한 사람은 가르친다.

한 사람은 반복한다.

한 사람은 집행한다.

한 사람은 승인한다.

한 사람은 보호한다.

한 사람은 침묵한다.

한 사람은 따른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 행동들은 작아 보일 수 있다.

집단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하나의 전체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정상화하고 있는가?

다른 누군가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의식과 질문할 허락

사람들이 배우기 위한 허용을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사람들은 존재하는 가장 큰 학습 환경 안에 이미 서 있으면서도 흔히 누군가에게 가르침받기를 기다린다.

세계 환경 자체가 교훈이다.

세계 환경 자체가 증거다.

세계 환경 자체가 배울 기회다.

세계 환경 자체가 교사다.

사람들은 이미 보이는 것에서 배우기 위해 허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할 도구다.

인류는 이미 보이는 세계에서 배우기 위한 허용을 흔히 기다린다.

이것이 질문할 허락이 중요한 이유다.

그것은 학습을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한다.

질문할 허락과 인류 발전

질문할 허락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사람들이 질문할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위임된 사고가 독립적 사고를 대신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소속이 진실보다 더 강해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두려움이 이해보다 더 강해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회적 수용이 행동을 통제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피상성이 정상적인 것이 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아이들이 질문할 능력을 잃고 학습하기 전에 계속 허용을 구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학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학습을 멈추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허용을 기다리는 동안 인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세계 환경의 학습자가 되기 위한 허용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무엇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반복되는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묻는다:

누가 또는 무엇이 허용을 통제하고 있는가?

무엇이 사람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가?

질문하기가 억제될 때 어떤 행동이 보호되는가?

사람들이 허용을 기다릴 때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는가?

사람들이 배우기 위한 허용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검열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기반한 침묵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피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수용에서 질문하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질문하기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섹션 6 – 정서적 영향

정서적 영향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되는 대신 세계 환경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2는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사람들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3은 어떤 유인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고, 반복하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4는 반복되는 행동이 이미 인류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5는 학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왜 스스로 질문을 멈출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이제 섹션 6에서는 정서적 영향을 다룬다.

정서적 영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해가 발달하기 전에 감정이 어떻게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행동, 믿음, 신뢰, 침묵, 반응, 반복, 학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감정적 존재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전에 반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검토하기 전에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전에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증거를 검증하기 전에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은 배우기 전에 편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이 그 애착을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전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를 만든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거부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방어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회피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침묵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반복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에 질문하기를 거부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적 영향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가르친다:

어떤 감정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촉발되고 있는가?

어떤 분노가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애착이 보호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이 방어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정서적 반응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정서적 영향은 인류에게서 감정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가 발달하기 전에 감정이 인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감정은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다.

감정은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다.

감정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다.

감정은 돌봄을 드러낼 수 있다.

감정은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다.

감정은 애착을 드러낼 수 있다.

감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두려움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분노가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격분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흥분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슬픔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행복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긴급성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자신감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하게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확신을 느끼면서도 틀릴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무엇이 그 두려움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화를 느끼면서도 그 분노 아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왜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이 감정을 만들었는가?

어떤 증거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가?

이 감정은 나를 어떤 행동으로 밀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내가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감정은 내가 배우는 것을 막고 있는가?

감정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되어야 한다.

정서적 제시는 증거가 아니다

정서적 제시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화가 난 듯 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진심인 듯 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배려하는 듯 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불린다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하기 전에 정서적 제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오도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친절하게 들리면서도 속일 수 있다.

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들리면서도 틀릴 수 있다.

한 사람은 화가 난 듯 들리면서도 조종하고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진심으로 들리면서도 연기하고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자신감 있게 들리면서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진실이 검토되기 전에 직함을 사용해 신뢰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증거를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시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에게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받아들이도록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증거 기준에 직접 연결된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감정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연기와 거짓 성격 이미지

정서적 연기는 시간에 걸쳐 거짓된 성격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한 사람은 친절을 반복해서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진심을 반복해서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자신감을 반복해서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차분함을 반복해서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걱정을 반복해서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권위를 반복해서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전문성을 반복해서 연기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정서적 연기는 사람들이 성격으로
착각하는 공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성격과 일관성에 직접 연결된다.

성격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격은 행동이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행동이 이 정서적 제시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일관성이 이 이미지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이 신뢰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유인이 이 연기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 정서적 이미지에 의문이 제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기 전에 신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에 정서적 연기는 검토되어야 한다.

이해보다 앞서는 반응

인간 학습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기
전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반응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해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해에는 질문하기가 필요하다.

반응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해에는 검토가 필요하다.

반응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

이해는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배우도록 요구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즉시 화를 낼 수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듣고 즉시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읽고 즉시 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고 즉시 한 입장을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즉시 하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반응은 이해가 아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배우고 있는가?

나는 방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검토하고 있는가?

나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정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명확하게 보고 있는가?

목적지는 반응이 아니다.

목적지는 이해다.

정서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두려움

두려움은 세계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가장 강한 정서적 메커니즘 중 하나다.

두려움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은 말하기를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은 폭로를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은 학습을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은 진실을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은 독립적 사고를 멈출 수 있다.

두려움은 순응을 만들 수 있다.

두려움은 침묵을 만들 수 있다.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 수 있다.

두려움은 반복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를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속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승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혼자인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남들과 떨어져 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두려움은 질문하기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움은 증거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움은 일관성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움은 진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가?

누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이 두려움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두려움은 내가 무엇에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가?

이 두려움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자동으로 행동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검토되어야 한다.

분노, 격분, 정서적 포획

분노는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분노는 학습을 멈출 수도 있다.

격분은 이해를 막으면서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분노에 정서적으로 포획될 수 있다.

그들은 검토하기 전에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은 이해하기 전에 비난할 수 있다.

그들은 질문하기 전에 반복할 수 있다.

그들은 배우기 전에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정서적 반응 안에 갇힐 수 있다.

분노는 또한 서사, 시스템, 집단, 언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신 계속 반응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분노를 진실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화가 난 듯 말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정서적 힘을 실어 말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분노는 증거가 아니다.

열정은 증거가 아니다.

정서적 힘은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분노는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이 분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이 분노는 내가 무엇을 하도록 밀고 있는가?

누가 이 분노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이 격분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분노는 내가 배우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나를 반응 안에 가두고 있는가?
분노가 학습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만들어진 신뢰와 정서적 기만

신뢰는 정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신뢰하도록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친절해 보인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차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진심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자신감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직함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전문가로 제시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정서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외관은 증거가 아니다.

친절은 증거가 아니다.

차분함은 증거가 아니다.

진심은 증거가 아니다.

자신감은 증거가 아니다.

전문적인 외관은 증거가 아니다.

전문가 지위는 증거가 아니다.

정서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은 정서적 연기에 속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친절을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진심을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자신감을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걱정을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권위를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전문성을 연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증거가 이 신뢰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행동이 이 신뢰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일관성이 이 신뢰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유인이 이 제시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이해하도록 도움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믿도록 정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만들어진 신뢰는 검토되어야 한다. 정서적 기만은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사람

믿음에 대한 정서적 애착

사람들은 믿음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서사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집단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정체성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시스템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권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거짓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정서적 애착이 형성되면 질문하기가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믿음에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집단에 질문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시스템에 질문하는 것이 위험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서사에 질문하는 것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믿음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진실을 방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애착을 방어하고 있는가?

나는 증거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틀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이것에 질문하면 무엇을 잃을 것인가?

정서적 애착은 독립적 사고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회적 환경과 정서적 영향

현대의 환경은 끊임없이 감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접한다.

사람들은 격분을 접한다.

사람들은 갈등을 접한다.

사람들은 비교를 접한다.

사람들은 인기를 접한다.

사람들은 지위를 접한다.

사람들은 부러움을 접한다.

사람들은 질투를 접한다.

사람들은 긴급성을 접한다.

사람들은 피상성을 접한다.

이 정서적 환경들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따라 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방어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승인을 구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배제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가시성을 중요성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사람들이 정서적 연기를 진실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환경은 어떤 감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행동을 보상하고 있는가?

어떤 비교가 장려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정서적 제시가 신뢰받고 있는가?

어떤 이해가 방해받고 있는가?

사회적 환경은 정서적 교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서적 영향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교실은 이해 대신 반응을 가르칠 수 있다.

교육, 아이들, 정서적 영향

교육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영향에 질문하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정보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감정이 신뢰, 두려움, 믿음, 반응, 침묵, 소속,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화를 느끼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창피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배제된 듯 느끼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질문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잘못됐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감정이 질문하기는 불편함을 만든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정서적 제시를 신뢰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친절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감 있게 들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들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전문가로 제시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 감정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친절하고, 화가 나 있고, 자신감 있고, 진심이고, 전문가 같고, 권위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증거, 행동, 일관성, 유인을 질문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아이들은 감정이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두려움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분노가 학습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소속이 믿음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수치심이 침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정서적 제시가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정서적 영향에 안전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이 정서적 영향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적 환경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왜 정서적 영향이 중요한가

정서적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이해를 반복해서 압도하는 동안 인류가 세계 환경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무엇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반복되는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누가 또는 무엇이 허용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묻는다:

어떤 감정이 이것을 형성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분노가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신뢰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애착이 보호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떤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반응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애착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기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반응에서 질문하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질문하기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시간에 걸친 정서적 영향

이 섹션의 첫 부분은 감정이 적은 아니지만 감정이 자동으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정서적 제시는 증거가 아니며,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신뢰가 정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반복되는 정서적 연기가
시간에 걸쳐 거짓 성격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제 이 부분은 정서적 영향이 시간에 걸쳐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이동한다.

정서적 영향은 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될 수 있다.

그것은 정상화될 수 있다.

그것은 물려질 수 있다.

그것은 세계 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전에 반복해서 반응할 수 있다.

그들은 검토하기 전에 반복해서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은 질문하기 전에 반복해서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증거를 검증하기 전에 반복해서 믿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은 배우기 전에 반복해서 감정을 따를 수 있다.

그들은 증거를 검토하기 전에 반복해서 제시를 신뢰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정서적 반응은 패턴이 될 수 있다.

정서적 패턴은 행동이 될 수 있다.

행동은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시간에 걸쳐 어떤 정서적 반응이 반복되었는가?

어떤 두려움이 반복되었는가?

어떤 분노가 반복되었는가?

어떤 애착이 보호되었는가?

어떤 정서적 제시가 반복해서 신뢰받았는가?

어떤 정서적 연기가 반복해서 신뢰를 만들었는가?

어떤 정서적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가?

이 감정은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어 냈는가?

이 정서적 패턴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는가?

시간에 걸친 정서적 영향은 사람들이 반응이 항상 고립된 것이 아님을 보도록 돕는다.

그것들은 반복되는 인간 행동이 될 수 있다.

정서적 조건화

사람들은 세계 환경에 의해 정서적으로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특정 질문을 두려워하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질문한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남들과 떨어져 선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이해하기 전에 분노를 느끼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검토하기 전에 충성심을 느끼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믿음에 의문이 제기될 때 위협받는다고 느끼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순응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정서적 제시를 신뢰하도록도 조건화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열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친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직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전문가다운 제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정서적 이야기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진심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정서적 조건화는 인생의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다.
 아이들은 무엇이 승인을 만들어 내는지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무엇이 거부를 만들어 내는지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무엇이 창피함을 만들어 내는지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무엇이 처벌을 만들어 내는지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무엇이 소속을 만들어 내는지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어떤 정서적 제시가 신뢰를 얻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 뒤 아이들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정서적 패턴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정서적 반응을 물려받았는가?
 어떤 정서적 반응이 나에게 가르쳐졌는가?
 어떤 정서적 반응이 보상받았는가?
 어떤 정서적 반응이 처벌받았는가?
 나는 어떤 정서적 제시를 신뢰하라고 배웠는가?

어떤 주제가 나를 정서적으로 방어적이게 만드는가?

어떤 질문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어떤 감정이 내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 하는가?

정서적 조건화는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숨겨진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두려움, 권위, 복종

두려움은 권위와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에 이익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교사와 의견이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정부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론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움은 이해가 발달하기 전에 복종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기 때문에도 복종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증거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권위가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가?

나는 동의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가?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은 진실이 검토되기 전에 사람들이
질문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이
계속되게 할 수 있다.

정서적 애착과 정체성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지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집단.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지위.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견.

자신의 역사.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평판.

자신의 권위.

자신의 시스템.

정체성이 믿음과 정서적으로 결합되면 질문하기가 개인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나의 질문이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증거가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다.

모순이 굴욕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바로잡음이 거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학습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실을 찾는 대신 정체성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내 어떤 부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은 질문하기에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가?

내 이해를 바꾸면 나는 무엇을 잃을 것인가?

나는 진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누구라고 믿는지를 보호하고 있는가?

인류 발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이의 제기를 개인적 파괴로 취급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 조종과 제시

감정은 정보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보는 두려움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긴급성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격분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동정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수치심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죄책감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자부심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소속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위협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친절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차분함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진심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자신감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전문가 정체성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전문적 지위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이 제시는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화가 나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다.

그들은 충성심을 느끼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순응할 수 있다.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친절하게 들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진심처럼 들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감 있게 들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차분하게 들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전문가로 제시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어떤 감정이 붙어 있는가?

감정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질문하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증거 대신 정서적 압력이 사용되고 있는가?

신뢰는 증거를 통해 얻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는 제시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증거 기준에 직접 연결된다.

두려움은 증거가 아니다.

격분은 증거가 아니다.

긴급성은 증거가 아니다.

정서적 압력은 증거가 아니다.

친절은 증거가 아니다.

진심은 증거가 아니다.

자신감은 증거가 아니다.

전문가다운 제시는 증거가 아니다.

정서적 이야기와 만들어진
믿음

이야기는 정서적 믿음을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편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검토하기 전에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참일 수 있다.

이야기는 선택될 수도 있다.

이야기는 형성될 수 있다.

이야기는 연기될 수 있다.

이야기는 반복될 수 있다.

이야기는 정서적 반응을 이끄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감정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증거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증거가 빠져 있는가?

어떤 관점이 선택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이끌고 있는가?

정서적 이야기는 사람들이 검토하기 전에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받아야 한다.

감정, 서사, 편 선택하기

정서적 영향은 서사에도 연결된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정서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편을 선택하도록 장려될 수 있다.

그들은 한 집단을 방어하고 다른 집단을 공격하도록 장려될 수 있다.

그들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전에 영웅과 악당을 보도록 장려될 수 있다.

그들은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도록 장려될 수 있다.

서사는 감정과 결합할 때 강력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서사가 자신에게 소속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서사가 자신에게 정체성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서사가 자신에게 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서사가 자신에게 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이야기 안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어떤 감정을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이 편을 선택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

어떤 증거가 무시되고 있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숨겨지고 있는가?

어떤 이해가 방해받고 있는가?

감정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도록 돕는 대신 그들을 서사 안에 가두어 두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정서적

영향, 침묵, 자기보호

감정은 침묵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거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침묵은 반복을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서사를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의존을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잘못된 행위를 보호할 수 있다.
침묵은 세계 환경이 계속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감정이 침묵을 만들고 있는가?
이 침묵에 의해 무엇이 보호되고 있는가?
이 침묵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감정은 사람들이 어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침묵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도록 돕고 있는가?
정서적 침묵은 강력한 참여 형태가 될 수 있다.

교육, 아이들, 정서적 안전

아이들이 올바르게 질문하려면 정서적 안전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질문을 멈출 수 있다.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질문을 멈출 수 있다.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이유로 조롱받으면 질문을 멈출 수 있다.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낙인을 받으면 질문을 멈출 수 있다.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이유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취급되면 질문을 멈출 수 있다.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이유로 정서적으로 처벌받으면 이해보다 침묵이 더 안전하다고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질문하기가 학습으로 들어가는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질문이 안전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불편함이 자동으로 질문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두려움이 자동으로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분노가 자동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정서적 제시가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친절이 자동으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감이 자동으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진심이 자동으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전문가다운 제시가 자동으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친절하고, 화가 나 있고, 자신감 있고, 진심이고, 전문가 같고, 권위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증거, 행동, 일관성, 유인을 질문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질문할 수 있는가?

아이들은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도록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질문이 학습의 일부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불편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감정이 믿음, 침묵, 행동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정서적 제시가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가?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훈련된다면 교육은 제대로 개선될 수 없다.

정서적 영향과 인간 의식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이것은 인간이 감정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학습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질문할 대상이 된다.

분노는 이해할 대상이 된다.

애착은 검토할 대상이 된다.

수치심은 인식할 대상이 된다.

침묵은 배울 대상이 된다.

반응은 넘어가야 할 대상이 된다.

정서적 제시는 질문할 대상이 된다.

만들어진 신뢰는 검토할 대상이 된다.

정서적 이야기는 검증할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감정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정서적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정서적 영향을 보여 준다.

그것은 두려움을 보여 준다.

그것은 분노를 보여 준다.

그것은 격분을 보여 준다.

그것은 소속을 보여 준다.

그것은 수치심을 보여 준다.

그것은 비교를 보여 준다.

그것은 애착을 보여 준다.

그것은 침묵을 보여 준다.

그것은 반응을 보여 준다.

그것은 정서적 연기를 보여 준다.

그것은 만들어진 신뢰를 보여 준다.

그것은 정서적 기만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어떤 정서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정서적 제시가 신뢰받고 있는가?

인류는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감정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감정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정서적 영향이 보이게 되면 행동이 보이게 된다.

행동이 보이게 되면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해가 가능해지면 학습이 발전할 수 있다.

정서적 영향과 인류 발전

정서적 영향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감정이 이해를 반복해서 압도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두려움이 질문하기를 멈추게 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분노가 학습을 대신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격분이 검토를 대신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정서적 애착이 물려받은 믿음을 보호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수치심이 침묵을 만드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정서적 압력이 증거를 대신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증거가 검토되기 전에 정서적 제시가 신뢰를 만드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이해가 발달하기 전에 정서적 이야기가 믿음을 만드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훈련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대신 그것에 반응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무엇이 행동을 보상하고 보호하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반복되는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누가 또는 무엇이 허용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묻는다:

어떤 감정이 이것을 형성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애착이 보호되고 있는가?

어떤 침묵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정서적 제시가 신뢰받고 있는가?

어떤 신뢰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정서적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떤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조건화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조종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제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이야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침묵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반응에서 질문하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질문하기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서적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섹션 7 - 서사 대 현실

서사 대 현실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되는 대신 세계 환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2는 증거가 주장되고, 반복되고, 보호되고, 제시되거나, 집행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사람들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3은 유인이 사람들이 같은 세계를 다시 만드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4는 반복되는 행동이 흔히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5는 학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흔히 질문하지 않도록 억제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6은 이해가 발달하기 전에 감정이 신뢰, 믿음, 두려움, 반응, 침묵,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이제 섹션 7에서는 서사 대 현실을 다룬다.

서사 대 현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서사를 제시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사 속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서사를 배운다.

사람들은 서사를 제시받는다.

사람들은 서사를 물려받는다.

사람들은 서사를 방어한다.

사람들은 서사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진다.

사람들은 결국 서사를 현실 자체로 착각할 수 있다.

서사는 인류를 형성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다.

서사가 곧 현실인 것은 아니다.

서사는 이야기다.

서사는 설명이다.

서사는 사건의 한 버전이다.

서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권장되는 하나의 틀이다.

서사는 참일 수 있다.

서사는 부분적으로 참일 수 있다.

서사는 불완전할 수 있다.

서사는 조작될 수 있다.

서사는 선택될 수 있다.

서사는 만들어질 수 있다.

서사는 보호될 수 있다.

서사는 전승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가?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누가 이 이야기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믿어짐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

어떤 증거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가?

어떤 현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무엇이 추가되었는가?

무엇이 숨겨지고 있는가?

서사 대 현실은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분리하도록 가르친다.

현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현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현실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현실에는 인기가 필요하지 않다.

현실에는 직함이 필요하지 않다.

현실에는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

현실에는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현실에는 반복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현실은 계속 존재한다.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을 정서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에 맞서 서사를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현실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 존재한다.
이것은 인류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현실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서사를 방어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물려받은 것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세계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계 환경에 관한 이야기에서 배우고 있는가?
인류는 서사 안에서 살 수 있다
인간 학습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서사 안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직함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설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행동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처음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그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려받은 서사를 현실 자체로 착각할 수 있다.

질문하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물려받도록 만들어진
것을 평생 방어할 수 있다.

인류가 인류를 가르치고 있다

인류는 대체로 인류에게 가르침받고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든다.

사람들은 서사를 만든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든다.

사람들은 직함을 만든다.

사람들은 역할을 만든다.

사람들은 설명을 만든다.

그 뒤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만든 것을 미래 세대에게
가르친다.

그 뒤 미래 세대는 물려받은 서사를 현실 자체로 착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받아들인 것을 독립적으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채 물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세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인류는 서사를 만들고, 서사를 물려받고, 서사를 방어한 뒤 그 서사를 현실 자체로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처음 이것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것을 다음 세대로 넘겼는가?

누가 아직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누가 아직도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가?

누가 아직도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가?

어떤 현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가?

인류가 서사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계속 서사를 물려받는 동안 인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만들어진

이야기, 만들어진 직함, 만들어진 권위

서사는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든다.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 있다.

직함은 만들어질 수 있다.

권위는 만들어질 수 있다.

직위는 만들어질 수 있다.

역할은 만들어질 수 있다.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 있다.

믿음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뒤 서사는 그 모든 것에 붙을 수 있다.

그 뒤 사람들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미래 세대는 결국 그것을 현실로 물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이 직함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권위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 역할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것에 정당성을 부여했는가?

누가 이것을 보호하는가?

이것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

어떤 현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가?

직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다.

권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다.

역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다.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다.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다.
현실은 항상 서사 자체와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돈, 반복, 서사의 강화

돈이 개입하면 서사는 극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만드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반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집행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보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쓰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배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를 방어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뒤 미래 세대는 반복된 서사를 물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서사가 자동으로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그 메커니즘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이 서사에 자금을 대고 있는가?

누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가?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가?

그것에 이익이 제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폭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서사는 결국 너무 정상화되어 사람들이 그것이 애초에
서사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믿음 체계와 물려받은 수용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것을 믿도록
장려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믿음을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그 믿음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그 믿음을 반복할 수 있다.

그들은 그 믿음을 미래 세대에게 넘길 수 있다.

그 뒤 미래 세대는 그 믿음의 출처와 기원을 독립적으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채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이 믿음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믿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어떤 증거가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현실이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가?

그것에 의문이 제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 자체가 현실은 아니다.

현실은 항상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세계 환경은 서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인류에게 보여 주고 있다

세계 환경은 서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인류에게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

세계가 진짜 학교다.

인류는 끊임없이 다음을 목격하고 있다:

반복.

보호.

직함.

권위.

소속.

두려움.

의존.

침묵.

유인.

감정.

성과.

서사.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배우는 대신 그것에 반응한다.

문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사는 현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서사가 현실 자체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보일 수 있다.

현실은 문서화될 수 있다.

현실은 반복해서 보여질 수 있다.

현실은 모순을 드러낼 수 있다.

현실은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낼 수 있다.

현실은 인간 행동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대신 서사를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를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설명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방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이 반복해서 다른 것을 보여 주더라도 서사를
방어할 수 있다.

서사는 세계 환경 자체가 될 수 있다

서사가 더 오래 존재할수록 더 정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더 정상적으로 여겨질수록 의문이 덜 제기될 수 있다.
의문이 덜 제기될수록 더 보호받게 된다.
더 보호받을수록 미래 세대가 더 많이 그것을 물려받는다.

결국 서사는 세계 환경 자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어른들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교사들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시스템들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기관들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회들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한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
그 뒤 서사는 현실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인류는 집단적으로 거짓 현실을 만든 뒤 여러 세대에 걸쳐
그것을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서사 대 현실이 중요한 이유

서사 대 현실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서사와 현실 자체를
혼동하는 동안 세계 환경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무엇이 질문하기를 막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어떤 감정이 수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제 서사 대 현실은 묻는다: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과 모순되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누가 그것을 보호하는가?

누가 그것을 반복하는가?

누가 그것을 물려받는가?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이 서사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물려받은 서사를 방어하는 데서 현실 자체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물려받은 서사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현실 자체에서 배우는 대신 물려받은 서사를 계속 방어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시간에 따른 서사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서사가 만들어지고, 반복되고, 물려지고, 보호되며, 결국 현실 자체로 착각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현실은 믿음, 인기, 직함, 권위, 감정, 반복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제 이 부분은 서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계속되는지로 이동한다.

서사는 보통 하룻밤 사이에 강력해지지 않는다.

서사는 흔히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배포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보호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가르쳐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물려질 수 있다.

그 이야기에 정서적 애착이 생길 수 있다.

그 뒤 그 이야기는 받아들여진 현실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애초에 서사였다는 사실조차 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서사는 얼마나 오래 존재해 왔는가?

누가 그것을 반복해 왔는가?

누가 그것을 보호해 왔는가?

누가 그것을 물려받았는가?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왔는가?

어떤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모순이 존재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무엇이 계속 보호되어 왔는가?

시간에 따른 서사는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드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

인류는 집단적으로 거짓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인류는 인류 스스로가 현실로 착각하는 거짓 현실을
집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전체 메커니즘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다음만 볼 수 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직업.

자신의 믿음.

자신의 지시.

자신의 기여.

자신의 생존.

그러나 세계 환경은 흔히 자신이 만들지 않은 서사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한 사람은 쓴다.

한 사람은 가르친다.

한 사람은 반복한다.

한 사람은 집행한다.

한 사람은 보호한다.

한 사람은 자금을 낸다.

한 사람은 출판한다.

한 사람은 믿는다.

한 사람은 침묵한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작아 보일 수 있다.

집단적으로 그것들은 하나의 전체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 뒤 인류는 인류 스스로 만든 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서사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서사를 반복하도록 돕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서사를 보호하도록 돕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현실을 대체하도록 돕고 있는가?
 내 기여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은 서사 대 현실 안에 있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다.
 서사는 인간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서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두려움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소속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침묵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복종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의존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정서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서사는 행동 자체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이미 자신이 물려받은 서사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 서사는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서사는 어떤 감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서사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서사는 어떤 침묵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서사는 어떤 의존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서사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이 서사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서사는 위험해진다.

어울림, 소속,
사회적 서사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을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소속을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승인을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울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서사를 강화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옷 입는 방식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방어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축하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무언가가 참인지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이
자신이 소속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울리고 있는가?

나는 질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따라 하고 있는가?

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집단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현실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소속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것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소속은
진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현대의 서사 환경

현대의 환경은 서사를 빠르게 만들고 퍼뜨릴 수 있다.

사람들은 생활방식을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의견을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반응을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격분을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기를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성공을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위를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모를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정서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
그 뒤 사람들은 반복해서 제시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말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성격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생활방식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외모를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행동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기 있어 보이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성공해 보이는 것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소속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완벽함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중요함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서사 환경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방하는 거짓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환경은 어떤 서사를 만들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행동을 보상하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연기를 장려하고 있는가?

어떤 현실이 숨겨지고 있는가?

어떤 현실이 대체되고 있는가?

어떤 이해가 방해받고 있는가?

현대의 서사 환경은 사람들이 현실 대신 연기 속에서 살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연기와 서사 안에서 살아가기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성공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중요함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지위를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완벽함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소속을 연기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삶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그 연기와 비교할 수 있다.
 비교는 그 뒤 더 많은 연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연기는 더 많은 모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모방은 더 많은 반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현실 자체가 아니라 집단적 서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무엇이 숨겨지고 있는가?
 이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이것은 연기인가?
 나는 자신을 현실과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자신을 서사와 비교하고 있는가?
 이 연기는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제시가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서사, 아이들, 물려받은 믿음
 아이들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서사 속에서 태어난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시스템을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직함을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권위를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믿음을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행동을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두려움을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정서적 애착을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물려받는다.

그 뒤 아이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방어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누가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어떤 증거가 이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현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가?

이것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는가?

이것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단순히 서사를 물려받아서 안 된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안전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스템, 서사, 세계 환경

서사는 시스템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시스템은 서사를 반복할 수 있다.

시스템은 서사를 보호할 수 있다.

시스템은 서사를 정상화할 수 있다.

시스템은 서사를 보상할 수 있다.

시스템은 질문하기를 억제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시스템의 반복을 진실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어떤 서사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 시스템은 어떤 서사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 시스템은 어떤 서사를 보상하고 있는가?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어떤 서사에 질문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과 모순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서사를 질문하지 않은 채 결과를 고치려고 한다.

이것은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 환경은 서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인류에게 보여 주고 있다

세계 환경은 서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인류에게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세계가 진짜 학교다.

인류는 끊임없이 다음을 목격하고 있다:

반복.

보호.

직함.

권위.

소속.

두려움.

의존.

침묵.

유인.

감정.

성과.

서사.

문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사, 권력, 인간 의식

인류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권력이 힘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력은 서사를 통해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서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이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면 결과를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이 결과를 형성할 수 있다면 세계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인류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같은 세계를 반복한다면 누군가가 인류에게 같은 세계를 반복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인류는 서사를 만들고, 서사를 물려받고, 서사를 방어한 뒤 그 서사를 현실 자체로 착각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작동해 온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서사를 형성하고 있는가?

누가 서사를 강화하고 있는가?

누가 서사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가?

누가 서사를 물려받고 있는가?

누가 서사를 방어하고 있는가?

누가 서사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서사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서사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서사 안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현실 자체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서사 대 현실과 인류 발전

서사 대 현실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서사가 반복해서 현실로 착각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이야기를 물려받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서사를 방어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짓 현실을 만든 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짓 현실을 만든 뒤 여러 세대에 걸쳐 그것을 방어하며 살아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소속이 진실보다 더 강해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배우는 대신 서로를 따라 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대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연기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서사에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채 서사를 강화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믿음 체계가 현실을 대체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미래 세대가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세계를 물려받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현실 자체에서 배우는 대신 물려받은 서사를 계속 방어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무엇이 질문하기를 막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어떤 감정이 수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제 서사 대 현실은 묻는다: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가?

어떤 현실이 그것과 모순되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누가 그것을 반복하는가?

누가 그것을 보호하는가?

누가 그것을 물려받는가?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그것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물려받은 서사에서 현실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물려받은 서사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섹션 8 - 심리적 영향

심리적 영향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2는 사람들이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3은 유인이 사람들이 같은 세계를 다시 만드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4는 반복되는 행동이 흔히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5는 학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흔히 질문하지 않도록 억제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6은 이해가 발달하기 전에 감정이 신뢰, 믿음, 두려움, 반응, 침묵,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7은 인류가 집단적으로 서사를 만들고, 물려받고, 방어하며, 그것을 현실 자체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이제 섹션 8에서는 심리적 영향을 다룬다.

심리적 영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계 환경이 자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세계 환경이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한 채 태어나지 않는다.

세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이해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음에 노출된다:

돈.

의존.

권위.

두려움.

침묵.

유인.

서사.

행동.

반복.

비교.

성과.

피상성.

반복되는 문제.

독립적 사고가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마음은 이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 환경은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이 반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무엇이 반복해서 정상화되고 있는가?

무엇이 반복해서 물려지고 있는가?

무엇이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미래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심리적 영향은 세계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인류 자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인간의 마음은 인류가 보호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환경 중 하나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흔히 심리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인류가 보호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환경 중 하나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그들은 시스템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행동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서사를 물려받는다.

그들은 권위를 물려받는다.

그들은 의존을 물려받는다.

그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물려받는다.

그 뒤 사람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방어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애초에 무엇이 자신을 형성했는지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무엇이 나를 형성했는가?

나는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나는 무엇을 반복했는가?

나는 무엇을 독립적으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정상적인 것이 되었는가?

어떤 환경이 나의 이해를 만드는 데 기여했는가?

질문하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제대로 배운 적 없는 환경에 의해 심리적으로 형성된 채 평생을 보낼 수 있다.

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인류를 가르치고 있다

세계 환경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

아이들은 그것에서 배운다.

어른들은 그것에서 배운다.

교사들은 그것에서 배운다.

부모들은 그것에서 배운다.

시스템들은 그것에서 배운다.

사회들은 그것에서 배운다.

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인류를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가 진짜 학교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세계 환경의 학습자가 아니라 세계 환경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세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 환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행동을 보상하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행동을 억제하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행동을 정상화하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흔히 대신 그것에 심리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은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의존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불안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부정직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피상성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압박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문제에 적응할 수 있다.

기만이 반복해서 정상화되면 사람들은 기만 자체에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결국 건강하지 않은 환경이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 뒤 미래 세대는 그러한 환경을 물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에 적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상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이러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행동이 보호되고 있는가?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원인에서 배우는 대신 증상에 적응한다.

돈의 메커니즘

돈의 메커니즘은 심리적 영향을 형성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다.

돈은 정보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의존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두려움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침묵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유인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결정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반복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도록 장려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의 메커니즘은 정보, 의존, 유인, 두려움, 반복, 침묵, 행동, 그리고 심리적 적응 자체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에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채 그 결과에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여기서 돈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돈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돈은 어떤 침묵을 보호하고 있는가?

돈은 어떤 의존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돈은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돈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아이들은 세계 환경의 심리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세계 환경을 이해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도구를 갖기 전에 심리적으로 세계 환경에 노출된다.

아이들은 다음을 경험하고 있다:

돈.

의존.

권위.

두려움.

비교.

성과.

서사.

피상성.

사회적 압박.

반복되는 패턴.

그것들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아이들은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불안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의존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비교를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불안정감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피상성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압박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침묵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을 심리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 환경을 심리적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육이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아이들은 다음을 배워야 한다:

질문하는 법.

보는 법.

이해하는 법.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법.

세계 환경에서 안전하게 배우는 법.

이것이 L2Q 질문하기 툴킷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인간

의식은 형성되고 있다

인류가 자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전에 인간 의식은 세계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두려움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두려움은 퍼질 수 있다.

비교가 반복해서 제시되면 비교는 퍼질 수 있다.

의존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의존은 퍼질 수 있다.

연기가 반복해서 제시되면 연기는 퍼질 수 있다.

피상성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피상성은 퍼질 수 있다.

반복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반복은 퍼질 수 있다.

그 뒤 미래 세대는 이러한 조건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대신 그것에 적응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 환경은 어떤 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이해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심리적 영향이 중요한 이유

심리적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 의해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동안 인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무엇이 질문하기를 막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어떤 감정이 수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서사 대 현실은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으며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이제 심리적 영향은 묻는다:

이 환경은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이해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의존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비교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세계 환경에서 배우고 그것을 개선하는 대신 계속 그것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흔히 대신 그것에 심리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시간에 따른 심리적 형성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흔히 심리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제 이 부분은 심리적 형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로 이동한다.

심리적 영향은 보통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흔히 반복된 노출을 통해 발달한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본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는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경험한다.

사람들은 같은 것에 반복해서 적응한다.

시간이 지나면 반복된 노출은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조금이라도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반복된 노출은 세계 환경 안에서 가장 큰 교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반복해서 적응하고 있는가?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 되었는가?

나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비교,
지위, 자기 가치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수 있다.

비교는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음을 비교할 수 있다:

외모.

돈.

생활방식.

인기.

지위.

성공.

소유물.

관계.

중요함.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자기 가치를 이러한 비교와 묶을 수 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덜 가치 있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이 더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누가 나에게 비교하도록 가르쳤는가?

나는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비교는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비교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비교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비교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측정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상성, 연기, 거짓 속에서 살아가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성공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완벽함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소속을 연기할 수 있다.

그들은 중요함을 연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숨길 수 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숨길 수 있다.

사람들은 고통을 숨길 수 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숨길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길 수 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숨길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연기 자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

그 뒤 다른 사람들은 그 연기를 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을 만들 수 있다.

연기는 모방을 만든다.

모방은 반복을 만든다.

반복은 정상화를 만든다.

정상화는 연기를 현실로 물려받는 미래 세대를 만든다.

기만이 반복해서 정상화되면 사람들은 기만 자체에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무엇이 숨겨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 척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연기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제시가 자동으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회적 환경과 서로를 따라 하기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배운다.

이것은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다음을 따라 할 수 있다:

말.

의견.

행동.

생활방식.

외모.

성격.

믿음.

반응.

감정.

습관.

사람들은 결국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들은 대신 따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음은 묻는 대신:

무엇이 참인가?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따라 하고 있는가?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따르고 있는가?

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울리고 있는가?

이것은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두려움, 불안, 심리적 생존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이것은 두려움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압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배우는 대신 그 환경을 견디며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칠 수 있다.

사람들은 압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이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이러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이러한 감정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탐욕, 시기, 인간 의식

사람들은 돈을 통해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위를 통해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유물을 통해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기를 통해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탐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시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불안정감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결국 세계에서 배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나는 왜 그것을 쫓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쳤는가?

이것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신 경쟁하도록 가르침받는다면 인간 의식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아이들과 심리적 유산

아이들은 정보만 물려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환경을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행동을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두려움을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서사를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압박을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비교를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피상성을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연기를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의존을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을 물려받고 있다.

아이들은 또한 주변 어른들에게서 배우고 있다.

아이들은 가짜 행복을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비교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사회적 압박을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침묵을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연기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고통을 숨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생존 자체를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결국 무엇이 고통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전에 고통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러한 영향이 깊이 정상화되기 전에
안전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 의식과 세계 환경

인간 의식은 세계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인류가 자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전에 인간
의식은 형성되고 있다.

두려움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두려움은 퍼질 수 있다.

비교가 반복해서 제시되면 비교는 퍼질 수 있다.

의존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의존은 퍼질 수 있다.

연기가 반복해서 제시되면 연기는 퍼질 수 있다.

피상성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피상성은 퍼질 수 있다.

반복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반복은 퍼질 수 있다.

그 뒤 미래 세대는 이러한 조건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대신 그것에 적응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이 환경은 인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이해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세계를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에서 배우기 시작할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돈의 메커니즘과 심리적 적응

돈의 메커니즘은 정보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의 메커니즘은 의존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의 메커니즘은 두려움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의 메커니즘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의 메커니즘은 반복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의 메커니즘은 침묵을 형성할 수 있다.

돈의 메커니즘은 심리적 적응 자체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에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채 그 결과에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돈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돈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돈은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돈은 어떤 의존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돈은 어떤 침묵을 보호하고 있는가?

돈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심리적 영향과 인류 발전

심리적 영향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아이들이 세계의 문제들에 노출되면서도 그것들에서 배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 현실과 비교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대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연기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심리적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반복되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 배우는 대신 그 문제들에 적응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원인에서 배우는 대신 그 결과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동안 돈의 메커니즘이 정보, 의존, 두려움, 행동, 반복, 침묵을 계속 형성한다면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무엇이 질문하기를 막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어떤 감정이 수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서사 대 현실은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으며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이제 심리적 영향은 묻는다:

이 환경은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환경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환경은 이해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환경은 인간 의식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심리적 적응에서 이해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검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검토에서 보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습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섹션 9 -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섹션 1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2는 사람들이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3은 유인이 사람들이 같은 세계를 다시 만드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4는 반복되는 행동이 흔히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5는 학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흔히 질문하지 않도록 억제된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6은 이해가 발달하기 전에 감정이 신뢰, 믿음, 두려움, 반응, 침묵,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7은 인류가 집단적으로 서사를 만들고, 물려받고, 방어하며, 그것을 현실 자체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섹션 8은 인류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세계 환경이 인류를 심리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이제 섹션 9에서는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을 다룬다.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흔히 서로 다른 사람, 시스템, 환경, 상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를 보호하면서 시스템에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보호하면서 권위에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한 가지에는 질문하면서 다른 것에는 질문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한 서사에 질문하면서 다른 서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한 시스템에 질문하면서 다른 시스템은 보호할 수 있다.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사람들이 학습에서 이중 기준을 제거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이중 기준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것은 애초에 왜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사람들은 흔히 의존, 두려움, 소속, 정체성, 돈, 권위, 감정, 물려받은 서사가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꺼이 배우려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인류는 흔히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인류가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다시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흔히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택적이 될 수 있다.

선택적 질문하기.

선택적 증거.

선택적 신뢰.

선택적 회의.

선택적 감정.

선택적 격분.

선택적 서사.

선택적 허용.

선택적 학습.

사람들은 무언가가 자신을 위협할 때는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도 무언가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때는 질문을 멈출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는 증거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이 의존하는 것은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관성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일관성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질문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무엇이 불편해지는가?

이중 기준은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이 계속되도록 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같은 기준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진실은 누가 검토받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기준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같은 기준은 다음에 적용된다: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

부모들.

교사들.

학교들.

정부들.

미디어.

경찰.

시스템들.

기관들.

조직들.

권위.

전문가들.

서사들.

정보.

이야기들.

믿음들.

같은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이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기준을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기준을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기준을 시스템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기준을 권위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기준을 내가 의존하는 것에 적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독립적 사고는 완전히 발달할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불편해지는 지점에서 학습을 멈춘다

사람들은 흔히 학습이 자신이 의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학습을 멈춘다.

돈이 개입되면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소속이 위협받으면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권위가 개입되면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이의가 제기되면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자신의 역할이 드러나면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검토해야 할 때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출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이 흔히 편안함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디에서 질문하기를 멈추는가?

나는 어디에서 불편해지는가?

이 불편함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계속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 수도 있는가?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질문이 불편해질 때 학습을 멈추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

돈의 메커니즘과 서로 다른 기준

돈의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멈추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의존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꺼이 질문하려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에 질문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회피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방어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침묵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반복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꺼이 검토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이 개입되기 전에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다가 의존이 나타난 뒤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여기서 돈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의존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반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가?

나는 돈 때문에 무엇에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돈이 개입되면 어떤 기준이 바뀌는가?

돈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기준을 바꾼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나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는 질문하면서 자신이 의존하는 것은 보호한다

사람들은 선택적 학습 안에 갇힐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는 질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보호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이것에 질문하고 있는가?

나는 왜 저것에는 질문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기준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가?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사람들이 학습에서 정서적 편애를 제거하도록 가르친다.

여덟 개의 모든 섹션에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하기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앞의 여덟 섹션을 하나로 모으는 섹션이다.

출처와 기원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증거 기준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유인과 이득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성격과 일관성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질문할 허락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정서적 영향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서사 대 현실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심리적 영향은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이 도구들을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에서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섹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툴킷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교육은 일관된 사고를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흔히 사람들에게 과목들을 분리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세계 환경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가르침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한 영역에는 능숙하게 질문하면서
다른 영역에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독립적 사고자가 되지 않고도 지식이 많아질 수 있다.

사람들은 같은 세계를 계속 다시 만들면서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사람들이 이중 기준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아이들이 선택적 진실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아이들이 선택적 격분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아이들이 선택적 질문하기를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아이들이 선택적 학습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이중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목적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 섹션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이 섹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독립적으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는가?

나는 같은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가?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학습에서 예외를 제거한다.

누구도 자동으로 질문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과 인간 의식

삶의 서로 다른 영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동안 인간 의식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식은 발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시스템에는 한 기준을, 자신이 의존하는 시스템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식은 발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이 거부하는 서사에는 한 기준을, 정서적으로 보호하는 서사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식은 발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른 곳의 권위에는 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 가까이의 권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의식은 발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이 중요한 이유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람, 시스템, 서사, 환경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동안 인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질문하면서 자신에게는 질문하지 않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한 권위에는 질문하면서 다른 권위에는 질문하지 않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한 서사에는 질문하면서 다른 서사는 보호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진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학습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질문이 불편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학습을 멈추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돈의 메커니즘이 사람들이 기꺼이 적용하려는 기준을 바꾸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이중 기준이 계속 정상화되어 있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무엇이 질문하기를 막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어떤 감정이 수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서사 대 현실은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으며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심리적 영향은 세계 환경이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제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묻는다:

나는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면제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검토하려 하지 않는가?

불편함은 어디에서 나의 질문하기를 멈추게 하는가?

돈은 어디에서 기준을 바꾸는가?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될 때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선택적 학습에서 일관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선택적 질문하기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중 기준과 인류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인류가 흔히 서로 다른 사람, 시스템, 환경, 상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제 이 부분은 서로 다른 기준이 어떻게 세계 환경을 반복해서 다시 만드는지로 이동한다.

이중 기준은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에는 한 기준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한 집단에는 한 기준을, 다른 집단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한 서사에는 한 기준을, 다른 서사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일관적인가?

나는 어떤 기준을 바꾸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중 기준은 반복되는 세계의 문제들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소속, 정체성,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보호하기

사람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것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체성을 연결하는 것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소속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배우는 대신 정체성을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행동에서 배우는 대신 집단을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증거에서 배우는 대신 믿음을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정체성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내 소속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보호한다.

이것은 학습을 멈출 수 있다.

부족주의, 분열, 선택적 진실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들로 나눌 수 있다.

집단은 학습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집단은 진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집단은 이해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을 방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편을 공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가 정보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가 정보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말했다면 나는 이것을 믿을 것인가?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이것을 말했다면 나는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가?

선택적 진실은 독립적 사고를 방해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의존 보호하기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환경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돈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승인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소속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그 뒤 사람들은 그러한 의존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것을 잃는다면 나는 그것에 질문할 것인가?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그것에 질문할 것인가?

내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에 질문할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존을 보호한다.

돈의 메커니즘과 일관성

돈의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멈추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의존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꺼이 배우려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존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꺼이 질문하려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방어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회피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을 반복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침묵하는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돈이 개입되면 어떤 기준이 바뀌는가?

어떤 의존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상황에서 돈이 제거된다면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돈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기준을 바꾼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나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선택적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는 매우 능숙하게 질문하면서 다른 영역에는 질문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곳의 문제를 보는 데 전문가가 되면서 자신의 기여는 보기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순을 드러내는 데 전문가가 되면서 자신의 모순은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서사에 질문하는 데 전문가가 되면서 물려받은 서사는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에 질문하는 데 전문가가 되면서 자신이 의존하는 시스템은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디에서 기꺼이 배울지를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학습을 멈추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흔히 학습이 자신이 의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학습을 멈춘다.

선택적 학습은 독립적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배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본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엇을 회피하는지 본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본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엇을 반복하는지 본다.

아이들은 이중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다음을 물려받을 수 있다:

선택적 진실.

선택적 격분.

선택적 질문하기.

선택적 학습.

선택적 증거.

선택적 신뢰.

아이들은 다음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질문하되 자신에게는 질문하지 말라.

어떤 시스템에는 질문하되 다른 시스템에는 질문하지 말라.

어떤 권위에는 질문하되 다른 권위에는 질문하지 말라.

어떤 서사에는 질문하되 다른 서사에는 질문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질문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질문하지 말라.

그 뒤 미래 세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세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처음부터 일관성을 배워야 한다.

일관성은 인류 발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경로 중 하나다

인류 발전은 일관성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관성은 예외를 제거한다.

일관성은 편애를 제거한다.

일관성은 선택적 학습을 제거한다.

일관성은 선택적 진실을 제거한다.

일관성은 선택적 질문하기를 제거한다.

일관성은 사람들이 독립적 사고자가 되도록 돕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이 기준을 어디서나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모두에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내가 지지하는 것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내가 의존하는 것에 적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독립적 사고는 완전히 발달할 수 없다.

인간 의식과 일관성

삶의 서로 다른 영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동안 인간 의식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일관되지 않은 채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일관되지 않은 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일관되지 않은 채 교육받을 수 있다.

일관성이 편애보다 더 강해질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일관성이 소속보다 더 강해질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일관성이 의존보다 더 강해질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일관성이 두려움보다 더 강해질 때 인간 의식은 발전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일관성을 회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세계 환경을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같은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된다
이 섹션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누구도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된다.
같은 기준은 우리의 일에 적용된다.
같은 기준은 우리의 믿음에 적용된다.
같은 기준은 우리의 행동에 적용된다.
같은 기준은 우리의 기여에 적용된다.
같은 기준은 어디서나 적용된다.
이것은 정직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경로 중 하나다.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과 인류 발전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인류 발전으로 가는 부재했던
경로의 일부다.

서로 다른 사람, 시스템, 권위, 서사, 환경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한 가지에는 질문하면서 다른 것은 보호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진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학습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보호하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물려받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불일치가 계속 정상화되어 있는 동안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

출처와 기원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증거 기준은 증거가 주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유인과 이득은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묻는다.

성격과 일관성은 행동이 주장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질문할 허락은 무엇이 질문하기를 막는지를 묻는다.

정서적 영향은 어떤 감정이 수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서사 대 현실은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으며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지를 묻는다.

심리적 영향은 세계 환경이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제 어디서나 같은 기준 적용은 묻는다:

나는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면제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검토하려 하지 않는가?

불편함은 어디에서 나의 질문하기를 멈추게 하는가?

돈은 어디에서 기준을 바꾸는가?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될 때 어떤 세계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선택적 학습에서 일관된 학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선택적 질문하기에서 독립적 사고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계 환경의 산물에서 세계 환경의 학습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인류 발전

인류 발전은 L2Q 질문하기 시스템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것이 부재했던 교육 경로가 개발된 이유다.

그것이 Book of Evidence가 교육 경로로 전환된 이유다.

그것이 World Education Online, Q2L, Young Questioners가 존재하는 이유다.

목표는 결코 단순히 질문하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결코 단순히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결코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인류 발전이다.

Book of Evidence는 30년이 넘는 직접 경험, 타임스탬프가 있는 증거, 공개 기록, 비디오, 라이브스트림, 이의 제기, 시스템 상호작용, 반복되는 패턴, 침묵, 반박의 부재, 세계 환경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모순을 드러냈다.

질문하기는 이미 존재했다.

정보는 이미 존재했다.

증거는 이미 존재했다.

교육은 이미 존재했다.

그럼에도 같은 세계는 계속 반복되었다.

인류는 제대로 보지도, 이해하지도, 배우지도 못한 것을 계속 반복했다.

정보가 존재했음에도.

질문하기가 존재했음에도.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교육이 존재했음에도.

반복은 계속되었다.

이것이 부재했던 경로를 드러냈다.

문제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었다.

문제는 질문하기의 부재가 아니었다.

문제는 증거의 부재가 아니었다.

문제는 교육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었다.

문제는 세계 환경 자체를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법을 익히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의 부재였다.

인류는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Book of Evidence는 반복되는 세계를 보이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인류가 무엇으로부터 배우는지와 인류가 반복해서 무엇이 되는지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세계 환경이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를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무엇이 반복되었는지를 드러냈다.

그것은 무엇이 계속되었는지를 드러냈다.

그것은 무엇이 보호되었는지를 드러냈다.

그것은 무엇이 숨겨졌는지를 드러냈다.

그것은 왜 질문하기만으로는 반복을 멈추지 못했는지를 드러냈다.

이것이 L2Q 질문하기 시스템이 개발된 이유다.

L2Q 질문하기 시스템은 먼저 만들어진 뒤 세계에 적용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반복해서 보여 준 것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것은 Book of Evidence가 드러낸 것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것은 질문하기가 이미 존재했지만 반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그것은 정보가 이미 존재했지만 반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그것은 증거가 이미 존재했지만 반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그것은 교육이 이미 존재했지만 반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부재했던 경로는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었다.

부재했던 경로는 더 많은 질문하기가 아니었다.

부재했던 경로는 구조화된 증거 기반 교육 경로를 통해 세계 환경 자체를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L2Q 질문하기 시스템은 그 경로를 제공한다.

그것은 세계 환경 자체를 질문하고, 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법을 익히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를 제공한다.

L2Q 질문하기 시스템은 사람들이 세계 환경 자체를 질문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세계 환경을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배우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보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해는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독립적 사고는 현실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배우는 대신 현실로부터 배우는 인류의 능력을 발달시킨다.

인류 발전은 그 과정의 결과다.

인류 발전은 인류가 세계가 반복해서 보여 주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인류 발전은 정보만 늘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자동으로 이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무엇으로부터 배우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해는 자동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인류 발전은 이해가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독립적 사고가 현실로부터 배우는 인류의 능력을 발달시킬 때 이루어진다.

앞의 섹션들은 인류가 세대에서 세대로 같은 문제, 행동, 시스템, 서사, 의존, 한계, 반복되는 패턴을 왜 반복해서 다시 만드는지를 이미 보여 주었다.

그것들은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주었다.

그것들은 질문하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주었다.

그것들은 인류가 세계 환경 자체에서 배우기 위한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여 주었다.

그 경로는 이제 존재한다.

인류 발전은 인류가 세계 환경 자체에서 배우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해는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이해가 발전할수록 독립적 사고도 발전한다.

독립적 사고가 발전할수록 반복은 그 경로를 잃는다.

반복이 그 경로를 잃을수록 인류는 같은 세계를 계속 반복하는 대신 현실에서 점진적으로 배우는 능력을 얻는다.

모두가 같은 세계 환경 안에서 살아간다.

모두가 그것에서 배운다.

모두가 그것에 기여한다.

모두가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

모두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가 미래 세대가 무엇을 물려받는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인류 발전은 모두가 같은 세계 환경을 공유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는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인류 발전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다.

모두가 인류를 형성하는 세계 환경에 기여하기 때문에 인류 발전은 모두에게 속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물려받는 세계를 만들지 않는다.

어른들이 만든다.

아이들은 교육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어른들이 만든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학습 경로가 제공될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결정한다.

사람들이 깨닫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미래 세대가 배우는 세계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아이들이 물려받는 세계 환경은 이전 세대가 무엇에 질문하기로 선택하고, 무엇을 무시하기로 선택하고, 무엇에 이익을 제기하기로 선택하고, 무엇을 보호하기로 선택하고, 무엇을 다음 세대로 넘기기로 선택하는지에 의해 형성된다.

인류가 무엇으로부터 배우는지는 인류가 무엇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무엇으로부터 배우는지는 미래 세대가 무엇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무엇으로부터 배우는지는 사회가 무엇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류 발전은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배우는지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배우는지를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

이것은 부모, 교사, 돌봄 제공자, 교육자, 학교, 교육 환경, 공동체, 사회 모두가 다음 세대가 반복보다 더 나은 것을 받도록 돕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책임이 자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인류가 함께 배울 때 인류 발전은 가장 빠르게 진전된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

어른들이 배우는 것.

부모들이 배우는 것.

교사들이 배우는 것.

돌봄 제공자들이 배우는 것.

교육자들이 배우는 것.

공동체들이 배우는 것.

사회가 배우는 것.

목표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인류가 함께 세계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류 발전은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류 발전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류 발전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류 발전은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인류 발전은 사람들이 세계 환경이 반복해서 보여 주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이해가 발전할수록 독립적 사고도 발전한다.

독립적 사고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현실을 대체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배우는 대신 현실에서 점점 더 배운다.

이해가 맹목적 수용을 대체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짓말은 그 경로를 잃는다.

독립적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기 때문에 따르기는 그 경로를 잃는다.

사람들이 제대로 질문해 보지 않은 것에 의존하는 대신 점점 더 현실에서 배우기 때문에 의존은 그 경로를 잃는다.

학습이 모방을 대체하기 때문에 반복은 그 경로를 잃는다.

같은 기준이 어디서나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기준은 그 경로를 잃는다.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 대해 무엇을 믿으라고 들었는지가 아니라 세계 환경이 실제로 보여 주는 것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인류 발전이 진전된다.

이것이 L2Q 질문하기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그것은 세계 환경이 반복해서 보여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배우고, 적용하도록 돕는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를 제공한다.

이것이 자료들이 중요한 이유다.

그것들은 소유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제한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또 하나의 통제된 시스템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에게 속한다.

그것들은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공유할 수 있다.

그것들은 인쇄할 수 있다.

그것들은 배포할 수 있다.

그것들은 적용할 수 있다.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것들은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어른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교육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사회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제한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한은 의미에 관한 것이다.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 경로는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료들은 변경되거나, 약화되거나, 잘못 제시되거나, 희석되거나, 뒤집히거나, 올바른 의미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인류 발전은 의미가 명확하게 유지되는 데 달려 있다.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으로부터 올바르게 배울 수 없다.

그들은 약화된 것으로부터 올바르게 배울 수 없다.

그들은 잘못 제시된 것으로부터 올바르게 배울 수 없다.

인류 발전은 사람들이 변경된 버전이 아니라 그 경로 자체로부터 배우는 데 달려 있다.

의미가 바뀌면 학습이 바뀐다.

학습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따라서 인류 발전은 경로 자체의 온전성을 보존하는 데 달려 있다.

이것이 공식 World Education Online 및 Q2L 경로가 중요한 이유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올바른 맥락에서 자료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그것들은 자료를 사용하고, 공유하고, 인쇄하고, 배포하고, 적용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하면서 의미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목적은 제한이 아니다.

목적은 의미의 보호다.

학습 경로의 의미가 그것이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반복으로 바뀐다면 그 학습 경로는 인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이것이 Q2L도 중요한 이유다.

Q2L은 교육 경로가 사회를 통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사용하고, 배포하고, 만들고, 적용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어른들이 다른 어른들에게 다가가도록 돕는다.

그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은 가족, 학교, 교육자, 공동체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배우도록 돕는다.

그것은 이해가 사회를 통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독립적 사고가 사회를 통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같은 구조화된 증거 기반 경로를 통해 세계 환경에서 배우도록 돕는다.

그것은 인류 발전이 사회를 통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반복을 물려받는 대신 학습 경로를 물려받도록 돕는다.

그것은 인류 발전을 개념에서 적용으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학습을 행동으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이해를 사회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독립적 사고를 사회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인류 발전을 일상생활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다.
아이들이 관련되는 경우, 자료는 부모, 교사, 돌봄 제공자, 학교, 교육 환경, 책임 있는 어른들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프레임워크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Young Questioners는 이것의 핵심이다.

Young Questioners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부모들이 배운다.

교사들이 배운다.

돌봄 제공자들이 배운다.

교육자들이 배운다.

학교들이 배운다.

공동체들이 배운다.

사람들이 프레임워크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Young Questioners 자료를 만들 때, 그들은 아이들이 배우도록 돕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 자신도 배우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이 무엇에 질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환경이 아이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이 보고, 이해하고, 배우고, 독립적 사고를 발달시키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고 있다.

만드는 과정은 학습 과정의 일부가 된다.

사람들은 적용을 통해 배운다.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통해 배운다.

사람들은 만들기를 통해 배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배우도록 도우면서 배운다.

따라서 Young Questioners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배우도록 돕는다.

교사와 교육자는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L2Q 질문하기 시스템은 교사와 교육자에게 아이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도록 도우면서 자신들도 계속 그것에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구조화된 증거 기반 방법을 제공한다.

같은 원리는 부모, 돌봄 제공자, 학교, 교육 환경, 책임 있는 어른들에게도 적용된다.

프레임워크는 한 집단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어른들에게 필요하다.

부모, 교사, 돌봄 제공자, 교육자, 학교, 교육 환경, 공동체에 필요하다.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서 배우도록 돕는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세계 환경 자체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실패한 같은 접근을 반복함으로써 개선될 수 없다.

교육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L2Q 경로가 제공되고 그들이 함께 그것에서 배울 때 개선된다.

인류 발전은 한 권의 책, 한 사람, 한 웹사이트, 한 조직, 한 세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

그것은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유되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어른들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교육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에 도달해야 한다.

이해가 발전할 때 인류 발전도 진전된다.

독립적 사고가 발전할 때 인류 발전도 진전된다.

사람들이 세계 환경을 단지 물려받는 대신 그것에서 배울 때 인류 발전은 진전된다.

미래 세대에게 현실을 단지 반복하는 대신 그것에서 배우는 능력이 주어질 때 인류 발전이 진전된다.

이해가 맹목적 수용을 대체할 때 인류 발전이 진전된다.

독립적 사고가 따르기를 대체할 때 인류 발전이 진전된다.

현실이 만들어진 거짓말을 대체할 때 인류 발전이 진전된다.

학습이 반복을 대체할 때 인류 발전이 진전된다.

인류 발전이 진전될수록 인류는 현실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배우는 대신 현실에서 배우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이해가 발전할수록 만들어진 거짓말은 살아남을 능력을 잃는다.

독립적 사고가 발전할수록 따르기는 그 경로를 잃는다.

사람들이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수록 이중 기준은 그 경로를 잃는다.

인류가 세계 환경 자체로부터 배울수록 시스템, 행동, 서사, 가정, 구조는 기만보다 현실에 점점 더 맞춰진다.

따라서 인류 발전은 단순히 질문하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배우고,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진실을 분별하고, 공정성을 적용하며, 인류가 만들고 다음 세대에 넘기는 세계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인류가 기만 위에 세우는 대신 진실 위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질수록 불공정은 그 기반을 잃는다.

불공정이 그 기반을 잃을수록 사회는 사람들, 미래 세대, 생명 자체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진다.

따라서 인류 발전은 단순히 지식의 발전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배우고 현실로부터 구축하는 인류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세계 환경을 이어 갈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중심에 있다.

아이들은 부모가 된다.

아이들은 교사가 된다.

아이들은 돌봄 제공자가 된다.

아이들은 노동자가 된다.

아이들은 지도자가 된다.

아이들은 의사결정자가 된다.

아이들은 세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

아이들이 오늘 배우는 모든 것은 내일 세계의 일부가 된다.

미래 세대가 물려받는 세계는 이전 세대가 무엇으로부터
배웠는지에 의해 형성된다.

미래 세대가 만드는 세계는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배우는지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 발전은 오늘 아이들이 무엇으로부터 배우도록
가르침받는지에 달려 있다.

아이들이 반복을 물려받으면 반복되는 세계는 계속된다.

아이들이 의존을 물려받으면 의존은 계속된다.

아이들이 따르기를 물려받으면 따르기는 계속된다.

아이들이 침묵을 물려받으면 침묵은 계속된다.

아이들이 두려움을 물려받으면 두려움은 계속된다.

아이들이 만들어진 거짓말을 물려받으면 만들어진 거짓말은 계속된다.

아이들이 L2Q 질문하기 시스템을 물려받으면 인류 발전은 계속된다.

아이들이 구조화된 증거 기반 질문하기를 물려받으면 이해는 발전한다.

아이들이 세계 환경 자체에서 배우는 능력을 물려받으면 독립적 사고는 발전한다.

아이들이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물려받으면 만들어진 거짓말은 그 경로를 잃는다.

아이들이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능력을 물려받으면 반복되는 이중 기준은 그 경로를 잃는다.

따라서 인류의 미래는 아이들이 오늘 무엇으로부터 배우도록 가르침받는지와 분리될 수 없다.

인류 발전은 이전 세대가 질문하지 못한 것을 미래 세대가 해결하기를 기다림으로써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류 발전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그 경로가 함께 주어질 때 만들어진단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배우는 것.

가족과 학교가 함께 배우는 것.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것.

공동체가 함께 배우는 것.

사회가 함께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것.

인류 발전은 한 사람의 배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류 발전은 인류가 함께 세계 환경에서 배우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때 만들어진다.

그것이 반복되는 해악이 그 경로를 잃는 방식이다.

그것이 만들어진 거짓말이 그 경로를 잃는 방식이다.

그것이 침묵이 그 경로를 잃는 방식이다.

그것이 의존이 그 경로를 잃는 방식이다.

그것이 따르기가 그 경로를 잃는 방식이다.

그것이 반복되는 세계가 그 경로를 잃는 방식이다.

그것이 인류 발전이 그 경로를 얻는 방식이다.

그 경로는 존재한다.

프레임워크는 존재한다.

자료들은 존재한다.

다음 세대는 존재한다.

책임은 존재한다.

이제 질문은 그 경로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다.

질문은 인류가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지 여부다.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인류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의 아이들은 내일의 세계가 된다.

아이들이 오늘 무엇으로부터 배우도록 가르침받는지는
그들이 내일 만들어 갈 세계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인류의 미래가 아이들의 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오늘의 아이들이 내일의 세계가 되며, 인류의 미래는 결국 미래 세대가 반복되는 세계를 물려받는지 아니면 그것에서 배우는 능력을 물려받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미래는 결국 이해가 발전하는지 반복이 발전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독립적 사고가 발전하는지 따르기가 발전하는지.

현실이 발전하는지 만들어진 거짓말이 발전하는지.

인류가 세계를 계속 반복하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그것에서 배우는지.

모두가 같은 세계 환경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류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모두가 그것에서 배운다.

모두가 그것에 기여한다.

모두가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

모두가 그것이 무엇이 되는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인류 발전의 이익은 한 사람, 한 집단, 한 시스템, 한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두가 같은 세계 환경을 공유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미래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이익은 모두에게 속한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어렸을 때 나는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는 진실이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는 시스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는 증거가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는 모순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가 들고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반복해서 매우 다른 것을 마주했다.

내가 경험한 세상은 내가 기대하도록 배운 세상이 아니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질문했을 때 나는 답을 기대했다.

내가 증거를 제시했을 때 나는 증거로 답해 주기를 기대했다.

내가 거짓말을 폭로했을 때 나는 진실이 돈, 지위, 권위, 신분, 사익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 주기를 계속 기대했다.

아무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을 멈추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30년이 넘는 문서화된 경험을 통해 나는 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침묵하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돈이 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 행동, 침묵, 결과, 전체 시스템을 형성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더 많이 이해할수록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환경에서 제대로 배우지는 못한 채 계속 그 환경의 산물이 되어 가고 있음을 더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은 그것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나는 아이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같은 세계를 물려받고, 결국 그것을 다시 다음 세대로 넘기게 되는 어른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실이 숨겨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사람들이 그것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적어도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해 보려는 시도 없이 미래 세대가 계속 반복되어 온 같은 세계를 물려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거짓말이라고 아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것에 순응할 수 없었다.

나는 어울리기 위해 그것이 참인 척할 수 없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수용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승인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편안함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돈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내가 거짓말이라고 아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혼자 서는 것이 나에게서 더 쉬웠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도록 돕는 것은 나 자신의 일시적인 삶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졌다.

아이들이 반복보다 더 나은 것을 물려받도록 돕는 것은 나 자신의 편안함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졌다.

나도 침묵한다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목격해 온 바로 그 침묵의 일부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느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해는 결국 Book of Evidence, World Education Online, L2Q 질문하기 시스템, Q2L, Young Questioners,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교육 자료들로 이어졌다.

돈은 나의 동기가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도록 돕기 위한 정보가 나에게 속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모두에게 속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정보, 자료, 교육 자료들이 사람들이 읽고, 사용하고, 공유하고, 배포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된 이유다.

목표는 결코 돈이 아니었다.

목표는 사람들이 세계 환경에서 배우도록 돕는 것이었다.

목표는 아이들이 반복보다 더 나은 것을 물려받도록 돕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그리고 왜 같은 문제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되는지를 본다.

나는 아이들이, 세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세상에서 제대로 배우는 법보다 주로 그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쳐지는 세상에 들어오는 이유를 이해한다.

나는 또한 이것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본다.

그것이 내가 시도한 이유다.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나는 인류가 세계 환경을 계속 반복하는 대신 그것에서 배우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사람들이 그 기회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지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결정이다.

나의 책임은 시도하는 것이었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 내 삶을 바쳐 해 온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시간, 노력, 희생, 위험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다시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아무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다시 할 것이다.

내가 이해하게 된 것을 일단 이해하고 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결코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다.

WORLD EDUCATION ONLINE

질문하는 법 배우기

질문하여 배우기

교육은 사회를 형성한다.

질문하기는 교육을 형성한다.

L2Q • Q2L • YOUNG QUESTIONERS

자료는 모두에게 속하며, 그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사용하고, 공유하고, 배포하고, 적용해야 한다.

worldeducation.online

q2l.online

info@worldeducation.online

다른 책들

Everyone Needs to Learn From This World

Why Education Must Improve

The Amazing Children: Journey to a Better World

인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할 수 없다

질문하는 법 배우기

질문하여 배우기